Entertainment p/17
metro
Sports p/20
일본팬 5만명 홀린 샤이니
박병호 벌써 시범경기 3호포
부패 용광로 터지나
검찰, 포스코 정준양 M&A 등 경영 행적 전방위 수사
'자원외교' 등 맞물려… 'MB 정권비리'로 확대 촉각
친李계 정계인사들
19일 긴급 회동
"엔진 터질라" 국내판매 벤츠 대량 리콜

사람 잡는 방산비리, 나라도 잡는다

통영함에 전자전장비 비리…국민 생명, 국가 안보 직접 위협

방위사업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비리와 관련해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체포한 데 이어 임직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도 이어지고 있다.

방위사업 비리를 막자며 지난 노무현정부에서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방산비리가 곧 드러날 전망이다. 방산비리는 단순한 국가 예산의 손실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제 구실을 못한 통영함 비리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이번 이 회장 수사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드러났다.

◆ 북한 지대공 위협에 무방비

EWTS는 공군 전투기들이 적지에 들어갔을 때 지대공 위협 등에 대해 가정해 훈련을 하는 장비다. 북한은 휴전선을 따라 밤에서 우리 공군기를 요격할 수 있는 전력을 배치해 두고 있다. 공군은 가상 훈련 장비를 이용해 전투기가 북한 미사일을 피하는 훈련을 해왔다. 따라서 EWTS에 북한 대공 전력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EWTS에는 북한이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중 SA-5와 SA-2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SA-3과 포함돼 있다. 북한 지대공 미사일의 80% 이상은 SA-5와 SA-2라고 알려져 있다. 지난 12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도 SA-5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 공군은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실전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비슷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때 K-9 자주포 6문 가운데 3문이 불발탄과 전자회로의 이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에 한몫한 통영함 비리

통영함은 1600억원을 들여 건조한 인명구조용 전투함이다. 해상 사고에서 활약은 기대했던 함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때 통영함은 무용지물이었다. 부품 작동불능으로 구조현장에 투입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통영함 건조를 둘러싼 방산비리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시가 2억 원 정도에 불과한 부품을 해군에 41억원이라는 거액으로 구입하고 뇌물을 받는 등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2012년 9월 통영함 진수식 당시 해군은 통영함이 장공모함 예인은 물론이고 침몰하거나 좌초된 배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선전했다.

또 잠수부가 수심 90미터까지 들어가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음파탐지기가 작전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면서, 실전배치가 늦어졌고, 지금까지 2년 넘게 통영함은 거제도 조선소에 있다.

◆ 개인장비 비리는 병사 생명 직접 위협

방산비리는 전자·헬기·전투기 등 무기체계 전반에 걸쳐 있다. 더 나아가 병사들이 사용하는 피복 식재료에까지 뻗어 있다. 개인장비에서의 비리는 유사시 병사 개인의 생명을 직접 위협한다. 단지 실전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그 위험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2013년 국회 국방위 소속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10년이 지난 군 방독면 가운데 74%는 가스가 누출돼 품질검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사시 출동한 병사의 74%는 화학무기에 희생당한다는 이야기다.

/정윤아기자 yoona@metroseoul.co.kr

수심함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황기철(오른쪽) 해군참모총장이 지난달 27일 이임식을 갖고 해군을 떠났다. 이임식에 참석한 합참의장 최윤희(?) 신임 해군참모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시 등장한 스탈린 박물관

metro Russia

책상·필기구 등 유품 전시

러시아에 스탈린 박물관이 다시 등장했다.

메트로 러시아는 트베리 주 르제프 시의 한 작은 마을에 최근 문을 연 스탈린 박물관을 12일(현지시간) 소개했다. 이 박물관은 1942년 스탈린이 나치 독일과의 전투를 지휘하기 위해 머물렀던 작은 집을 개조한 것이다.

러시아 공산당 르제프 지역 대변인 아르촘 곤차로프는 "도서관으로 사용돼 왔던 건물의 일부를 스탈린 박물관으로 개조했다"며 "박물관 내에는 스탈린이 이 지역을 방문했을 당시 사용했던 물품들이 주로 전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스탈린은 이 곳에서 쿠르스크 전쟁에 관한 중요한 서명을 했다"며 "당시 스탈린이 앉았던 책상, 서명에 사용한 필기구 등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공산당 역사단체는 이 건물 전체를 스탈린·쿠르스크 전쟁 박물관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금 활동도 벌이고 있다.

/미하일 네웨체즈 기자·정리 이국명기자

Сталину могут отдать библиотеку

한미연합 포탄사격훈련 15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열린 한미연합 포탄사격훈련에서 국군 1포병여단 예하 전포대대 장병과 미 25사단 예하 2여단 포병대대 장병이 K-9 자주포와 미군 신형 견인포 M777A2를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형 견인포 M777A2가 한반도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사드,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에 포함"

한반도 배치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에 포함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사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에 포함돼 있다"며 "사드 체계는 미국 공군 대형 수송기로 수송할 수 있어 신속한 전개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드 체계는 트럭에 탑재되는 발사대, 요격미사일, 항공 수송이 가능한 탐지레이더(AN/TPY-2),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관리 역할을 하는 화력통제 시스템 등 4개 부품으로 구성된다. 사드를 개발한 록히드마틴 측은 "사드는 항공, 육상, 해상을 통해 전 세계로 수송할 수 있고 신속한 전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2012년부터 작년 초까지 사드 체계 배치에 적절한 장소를 비공식적으로 조사한 것도 상시 배치 가능성과 함께 한반도 유사시 전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사드 체계를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를 검토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드 체계의 항공 수송이 가능하더라도 수송·설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상시 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상시 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정윤아기자

사드 공론화에 나선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왼쪽)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의제에 올려 관심이 집중됐다. 야당과 청와대 등은 사드 공론화에 반대하고 있다. /뉴시스

자원외교 국정조사 새 국면

검찰 고강도 수사 예고… 공기업 청문회 곧 시동

이명박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이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정권 차원의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상황이 다급해졌다. 당장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건을 두고 검찰과 국회 간 경쟁 아닌 경쟁이 시작됐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 건은 자원외교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등 자원외교와 관련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기관보고를 마치고 15일 현재 해외 현지조사를 실시 중이다. 16일 현지조사에서 돌아와 에너지 공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 건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석유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조30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난 상태다. 야당에서는 이명박정부 실세들이 개입한 결과로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힘써 왔다. 더 나아가 친박(친박근혜) 실세이자 이명박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해외 현지조사 중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아들 김형찬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 상무가 인수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총무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측근 인사다. 또 야당 위원들은 인수가격 판의 이전에 관련 내용이 당시 지경부 장관인 최 부총리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강 전 사장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 하베스트사 자회사인 날사 인수와 관련해 "(최 부총리가 인수를) 부인하지 않은 건 적확하다. (최 부총리가 허락한)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부실기업인 날사 '끼워넣기' 인수는 석유공사 손실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 반대해 왔다. 검찰의 고강도 수사 예고는 이 같은 상황에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하베스트사 인수 건으로 전 석유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정됐던 이 사건을 최근 특별수사1부에 재배정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최근 대국민담화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원외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이명박정부를 정면 겨냥한 사정정국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올 정도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사드 논란 속 미중 차관보 방한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차관보급 고위 당국자가 비슷한 시기 한국을 방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15~18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6~17일 각각 한국을 찾아 카운터파트인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하고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미중 고위 당국자가 동시 방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7월부터 중국 외교부에서 한반도 관련 업무를 맡은 류 부장조리는 15일 오후 입국해 16일 우리 당국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후 제주도 등을 방문하고 18일 일본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방한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 입장을 재차 우리 측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 최근 사드 배치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 중국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셀 차관보는 방한 하루 뒤인 오는 17일 우리 당국자들과 만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이후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러셀 차관보는 이번에 우리나라만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러셀 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러셀 차관보는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 주도의 AIIB에 가입하는 문제와 관련,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AIIB에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려면 이달 말까지 참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시한을 제시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이를 두고 막바지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효미기자 yoona19@

제55주년 3·15의거 기념식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55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부패와의 전쟁'에 친이계 긴급 회동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의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오는 19일 만찬 회동을 한다.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리는 이번 모임은 안경률·김승규·염배규 전 의원 등을 주축으로 20~30여명의 원내·외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나온 반응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자원외교와 포스코건설, 방산비리 등 이명박정부를 정조준하는 분위기이고, 친이계는 이에 개별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함께 내일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한 친이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한때 친이계 전·현직 의원 60여명이 참여하는 당내 최대 모임이었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두드러진 활동 없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올해 초 대규모 신년 모임을 계획했다가 일정상의 이유로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다 돌연 만찬 회동을 갖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 참석자가 "여러 이유로 미뤄왔던 신년 인사를 나누는 자리이지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친이계가 이명박정부를 겨냥한 사정정국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완구 총리의 담화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담화는 이미 수사할 대상을 정해 놓고 있다.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대기업 비자금, 공직문서 유출 이상 4가지"라며 "이것은 기획수사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병형기자

4·29 재보선 대진표 윤곽…선거분위기 고조

4·29 재보궐 선거에서 맞붙을 여야 후보군이 15일 윤곽을 드러내면서 여야가 사실상 선거체제로 전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첫 정면 승부인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치러지는 만큼 향후 민심의 풍향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3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미니 총선의 성격도 있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 중원에 오신환 현 당협위원장과 17~18대 의원을 지낸 신상진 전 의원을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했다. 광주 서을에는 지난 13일 사표를 낸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사실상 전략공천 후보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소속 안덕수 전 의원의 당선 무효 확정으로 공석이 된 인천 서구·강화을엔 안상수 전 인천시장, 이경재 전 의원, 제만석 정책보좌관(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후보 경선을 통해 서울 관악을에 정태호, 성남 중원에 정환석, 광주 서을에 조영택 후보를 각각 확정했다. 인천 서구·강화을은 현재 후보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후보가 확정된 세 곳 모두 야권 성향이 강하지만 재·보선 특성상 투표율이 낮고 야권에 비우호적인 중장년층 참여율이 높은데다 야권 후보가 난립해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야권의 텃밭인 광주 서을엔 인지도가 높은 천정배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라 새정치연합으로선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됐다. 새누리당에서는 야권이 분열된 틈을 타 내심 '제2의 이정현'을 배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내심 하고 있다. 인천 서구·강화을은 원래 새누리당 텃밭이었던 곳이어서 야권에서도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양효미기자 yoona19@

외국인근로자 노동권리수첩 5개 국어로 발간·무료배포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노동권리수첩이 나왔다.

서울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 관련 제도와 권리, 사업주에게는 꼭 지켜야 할 노동관계 법령을 알려주는 외국인근로자 노동권리 수첩을 5개 국어로 발간해 무료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다.

내용은 근로계약서작성,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임금, 퇴직금, 임금체불, 업무상 재해 등 11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부록에는 고용허가제의 관련한 내용과 외국인근로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주요기능, 연락처가 수록돼 있다.

발간한 수첩은 성동, 성북, 금천, 강동, 양천, 은평 등 6개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시 홈페이지(economy.seoul.go.kr/archives/47045)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실제 노동권리를 침해당한 외국인근로자는 서울시 글로벌센터나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Foreign laborer right notebook published in 5 different languages

Foreign laborer right notebook for foreigners has been published.

It has been reported on the 12th that Seoul has published and is planning on distributing laborer right notebook which informs the foreign laborers about labor policies, rights and labor related laws that owners must know.

5 languages are Korean, English, Chinese, Philippines and Vietnamese.

The 11 parts of the contents are filling out labor contract, working hours, holidays, salary, pension, delay in payment and industrial accidents.

The appendix includes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list of organizations and their contact numbers where foreigners can ask help to.

The published notebook will be distributed for free in 6 of the Foreign Laborer Center in Sung dong, Sung buk, Geum cheon, Gang dong, Yang cheon and Eun pyoung and also can be found at Seoul homepage(economy.seoul.go.kr/archives/47045).

For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laborer's policy or violation of labor rights, visit or contact the Seoul Global center or Foreign laborer center.

/제공=파고다어학원 영어강사 Chris Kes(크리스 키스)

기세 확 꺾여버린 IS

이라크·시리아서 '수세'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기세가 급격히 꺾이고 있다.

이라크는 물론 시리아 점령지에서도 수세에 몰리고 있다.

AP통신은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YPG)와 기독교계 민병대가 IS의 시리아 동북부 하사케 주의 기독교 거주민 마을 탈마가스를 되찾았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군이 이곳에서 서쪽으로 10㎞가량 떨어진 알타미르의 IS 주둔지에 지원 공습을 가했으며 현재 이곳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라크의 전략적 요충지 티크리트에서도 이라크군과 시아파 민병대 연합병력의 대대적인 공세로 IS를 몰아내는 중이다.

이라크군과 함께 티크리트 탈환 작전을 벌이는 시아파 민병대 측은 "72시간 안에 티크리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IS에 충성을 맹세한 나이지리아 테러단체 '보코하람'도 위기에 처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니제르-차드군이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보코하람에 대한 대대적인 반공을 벌여 큰 전과를 올렸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보코하람 근거지인 나이지리아 다마삭을 탈환했다.

◆IS '인간방패' 전략 구사할 듯

관련 IS가 '인간 방패' 전략을 구사하려고 민간인을 머물게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동 전문매체인 알모니터는 13일(현지시간) 모술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IS가 회복할 수 없는 환자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민간인의 이주를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모술의 인구는 150만명 정도로 알려졌다.

알모니터는 "모술 주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대대적인 탈환 작전이 벌어지기 전에 모술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현지 주민의 말을 전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푸틴 건강이상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 등이 나도는 가운데 12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각의 도중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푸틴이 지난 5일 이후 대중에 모습을 비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연기를 발표하면서 인터넷에는 그가 매우 아프다거나 주요 정부 인사 숙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AP 연합뉴스

중동에도 번진 셀카 열풍 14일(현지시간) 요르단 고대 유적지인 암만 시타델(암만 성)에서 열린 셀카찍기 행사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단체셀카를 찍고 있다. /뉴시스

역사 왜곡 위해 미 대학에 돈 푸는 일본

조지타운·MIT·컬럼비아대에 1500만 달러 투입

지난해 말 '미국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도하다 역공에 휘말렸던 일본 정부가 이번에 미국 대학에 '마수'를 뻗치고 있다. '문화교류 증진'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유수 대학들에 1500만 달러(약 169억원)의 일본학 연구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의 조지타운 대학과 매사추세츠 주의 MIT 공대가 일본 정부로부터 각각 5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학 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이 자금은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2015~2016 회계연도 예산을 통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도 일본 정부로부터 2014~2015 회계연도 예산에 책정된 5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 /AFP 연합뉴스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 국제교류재단인 '재팬 파운데이션'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 6개 대학에 각각 20만 달러가량의 공공외교 자금을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역풍 가능성 커

이에 대한 미국 내 시각은 곱지만은 않다. 순수한 공공외교 목적을 넘어 전쟁범죄와 군대 위안부 등 과거사를 '세탁'하려는 의도라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의 과거사 공세로 미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미국 학계를 겨냥해 본격적으로 역사 수정 움직임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는 순수한 공공외교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또 다른 역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말 뉴욕주재 총영사관을 통해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에 위안부 관련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다. 일본은 특히 출판사를 상대로도 종군 교육을 역사 교과서에 포함된 위안부 관련 기술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반축을 사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기준금리 1% 시대…저축은행 뜬다

연 3%이상 고금리 상품으로 소비자 유혹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1%대로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이 눈길을 끌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한푼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이 적금 상품으로 시중 자금이 몰리자 저축은행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과 적금 평균 금리는 각각 2.5%, 3.8% 수준이다.

반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지난 1월 기준 2.0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기예금 금리대별 가입액 비중을 보면 2%대가 77.4%로 주를 이루고 있지만 2%대 미만도 22.6%를 차지했다.

게다가 기준금리도 1.75%로 인하되며 예금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다. 결국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고려할 경우 예·적금 상품에서 본전을 얻기도 힘들어지는 셈이다.

이에 반해 저축은행 업계는 연 3% 이상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며 금융소비자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연 6.5% 금리를 주는 '웰컴 누구나우대적금'을 내놨다.

이는 신규가입만으로도 연 4.0%를 주며 적금 납입금 자동이체시 연 4.9%를 받을 수 있다. 또 KB국민카드를 발급하고 카드 결제 계좌를 등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출 시 최대 연 6.5%까지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으로 가입기간은 12개월, 가입금액은 20만원 이하이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기소득 맞벌이 부부 ▲단독세대주 일정금액 이하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근로장려수급자 등이라면 최고 7.8% 금리를 주는 '웰컴 디딤돌적금'도 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나온 이 적금은 12개월 이자시 최고 7.8%까지 우대해준다.

웰컴저축은행은 또 수시입출금 통장인 '웰컴 첼러스 통장'을 출시, 50만원을 초과하는 예치잔액에 대해 연 2.0%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친구나 연인이 함께 들어 더 좋은 상품도 있다.

OK저축은행은 친구나 가족이 함께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OK끼리끼리 정기적금'을 판매 중이다.

이 적금은 기본금리 연 3.8%에 가족 또는 친구 5인 이상이 영업점에 내방해 동시에 상품 가입 시 우대금리 0.5%포인트가 더해져 최대 4.3%의 금리를 제공한다.

동시 가입인원이 3~4명인 경우에는 0.3%포인트, 2명인 경우엔 0.1%포인트를 준다. 연인이 함께 가입해도 0.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가입기간은 12개월, 가입금액은 월 10만~100만원으로 1인 1계좌로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저축문화 장려를 위한 특판상품도 있다.

SBI저축은행은 SNS를 통해 우대금리를 받는 'SNS다함께 정기적금'을 출시했다. 이는 카카오스토리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다함께 저축하자 캠페인 콘텐츠를 공유시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가입기간은 1년으로 우대금리 적용 시 현재 연4.0%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은 월10만원부터 50만원까지다.

SBI저축은행은 또 본사 이전을 기념해 연 4.7% 금리를 주는 '희망정기적금'도 내놨다.

저소득층과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나온 이 상품은 월 불입액 1만원부터 50만원 이하(학생은 30만원 이하)로 가입기간은 1년이다.

가입은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새터민, 초·중·고등학생 등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일반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데다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적용받기 때문에 높은 금리혜택과 안정성까지 함께 얻을 수 있다"며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조금이나마 더 높은 금리를 얻고자 하는 소비자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미선기자 alws0203@metroseoul.co.kr

market index <13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85.79 (+15.20)	634.25 (+6.10)	1.87 (-0.030)	1128.90 (+6.30)

해외선물 신규고객 수수료 50% 할인

신한금융투자 이벤트

신한금융투자가 해외선물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선물HTS인 신한아이 GX 및 MTS 신한아이 스마트글로벌의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수수료 50% 할인 이벤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규고객 및 거래중단 고객(2014년 1월 이후 거래가 없던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선물 주요거래종목의 수수료를 50% 할인하는 이벤트이다.

이벤트에 해당하는 상품은 총 10개 품목으로 6A(Australian Dollar), 6E(Euro FX), 6J(Japanese Yen), ES(E-mini S&P500), NQ(E-mini Nasdaq100), YM(mini sized DOW), NKD(NIKKEI225 $), CL(Crude Oil), GC(Gold), SCN(FTSE China A50)이다. 신규고객은 상품등록 다음날부터 4개월간 수수료의 50%를 할인 받게 되며 거래중단 고객은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사업부(02-3772-4365) 또는 global_fo@shinhan.com으로 별도 신청할 경우 신규고객과 마찬가지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신규고객의 경우 선착순 50명에 한하여 해외선물 상담 후 계좌개설을 하면 백화점 상품권(1만원권)을 증정한다. /김현정기자 minjeje

설계특화 오피스텔 전성기

작은 공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설계 잇달아

기준금리 1%대의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대표 수익형부동산인 오피스텔도 진화하는 중이다. 저금리 속에서도 공급과잉을 우려해 투자를 망설이는 수요자들을 위해 차별화된 설계기법을 도입,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설계를 특화하거나 준공 이후 인테리어를 통해 상품가치를 높이는 오피스텔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대우건설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분양 중인 '인천 논현2차 푸르지오시티' 전용면적 20~31㎡ 일부에 실내인테리어 무상 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물형 천장 시공과 조명설치, 가변형벽체인 중문을 설치해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중문 설치로 현관이 투룸으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천장이 높아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분양대행사인 이삭디벨로퍼 김담헌 부장은 "젊은 직장인 수요의 경우 좁게 살더라도 인테리어에 민감하다는 점을 착안해 이 같은 서비스를 기획, 경쟁력을 높였다"며 "임차인의 만족도가 높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임대인인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광교 엘포트(L'FORT) 아이파크' 전용면적 21~29㎡에 소형임에도 욕조를 설치해 눈길을 끈다. 최근 반신욕 등 욕탕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의 추세에 맞춘 설계라는 게 분양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마이너스 골딩(숨은 몰딩) 마감 처리를 통해 깔끔함과 함께 시각적으로도 넓어 보이는 효과를 냈다.

KCC건설은 위례신도시에 성남권역에서 공급한 '위례 우남역 KCC웰츠타워' 전용면적 29~30㎡ 초소형에 투룸형 평면과 거실아트월 선택 인테리어제품을 선보였다. 또 41㎡은 침실 일짜큰을 오픈 서재와 드레스룸 중 택일하도록 했고, 50~55㎡는 쓰리룸 구조에 바닥재까지 계약자가 고르도록 배려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특화설계는 좁은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때 빛을 발하기 마련"이라며 "최근 전세난과 저금리 기조로 오피스텔이 투자와 실수요의 다양한 측면으로 인기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 소형화와 설계 경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선화기자

공주 신관동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견본주택 내부

공주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1만명 방문

충남 공주시에 7년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던 '효성해링턴 플레이스'가 견본주택 오픈 3일만에 약 1만1000명의 집객수를 기록했다.

15일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이날 점오까지 약 1만1000명이 다녀갔고, 이같은 추세라면 오후 6시까지 1만 4000여명이 다녀갈 것으로 내다봤다.

견본주택은 전용면적 59A, 59C, 74타입 총 3개의 유니트로 구성됐다. 현장은 새 아파트의 다양한 편의 설계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방문객들로 붐볐고 상담석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는 등 방문객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청약 조건 변경과 분양가상한제 등에 대해 자세히 묻는 예비 수요자들이 많았다.

중대형 위주의 공급이 많았던 공주시에 중소형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으로 59A 타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다. 금흥동에서 방문한 주부 정모씨(41)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오래돼 예전부터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세종시로 가기에는 가격이 부담되고 공주를 떠나고 싶지가 않아 이번 분양을 기다려왔다"며 "분양가도 부담 없는 수준으로 잘 나온 것 같고 설계도 마음에 들어 이 참에 청약통장을 쓰려고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공주 신관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735만원으로 책정됐다. 견본주택은 충남 공주시 신관동 31-10번지에 위치했다. 입주는 2017년 6월 예정이다.

청약은 3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청약을 받으며 20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발표는 26일, 계약접수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한다.

/김학철기자 kimc0604@

로또복권 제641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11	18	21	36	37	43	12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890,074,563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53,016,635
3등	5개 숫자 일치	1,258,415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 집 국 장	강세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01

2000년 9월 20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바00000

아파트 담배연기·악취 개선 배기 설비 의무화

아파트 주민들의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했던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 악취 등이 앞으로 크게 줄어든다. 단위 세대별로 자동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안의 세대의 부엌·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나 냄새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세대별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내용에 따라 세대 내에서 발생되는 조리 시 음식냄새, 흡연으로 인한 연기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입주자의 불쾌감을 줄여주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이웃 간 갈등과 분쟁 요인이 되었던 층간 흡연 문제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김학철기자

GS건설, 카카오톡 분양상담

GS건설이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서 '미사강변리버뷰자이' 분양을 앞두고 카카오톡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수요자는 미사강변리버뷰자이 홈페이지에서 관심고객으로 등록한 뒤 카카오톡 Yellow ID를 친구 추가하면 된다. 카카오톡을 통해 분양소식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또 카카오톡 Yellow ID를 추가한 고객 중 400명을 추첨해 조지아 오리지널 캔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3월 16일과 23일이며, 미사강변리버뷰자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삼대 GS건설 분양소장은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벤트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미사강변도시에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는 30~40대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벤트의 호응도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911@

유상증자 나서는 보험업계

MG손보 이어 롯데손보도 추진… 재정건전성 확보와 금리인하 선제적 대응

보험업계가 잇따라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오는 2018년 도입되는 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2, 이하 IFRS4)의 준비를 위한 자본건전성 강화와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분석된다.

롯데손해보험은 13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KDB대우증권과 신한금융투자증권 등 대표주관사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아직 규모와 시기 등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면서도 "지난 2012년 실시한 유상증자액 700억원 수준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MG손해보험은 이달 내에 대주주인 자베즈파트너스가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MG손보 이번 유상증자는 지난 2013년에 200억원, 지난해 150억원에 이은 세번째다.

악사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2월 350억원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다.

이처럼 보험업계가 잇따라 유상증자를 실시·추진하는 데는 오는 2018년 도입되는 IFRS4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4가 도입되면 보험사 재무건전성 평가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급감할 우려가 있는 것.

현재 이들 업체의 RBC비율은 감독당국의 권고수준인 150%대에 머무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9월 기준 롯데손보의 RBC비율은 153.2%를 기록했다. 이 기간 MG손보와 악사손보의 RBC비율은 각각 156.7%, 130.4%를 보였다.

RBC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다. 보험업법에서는 100%를 RBC의 최저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150%를 '우려' 수준으로 보고 관리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에 따른 자산 수익률 하락도 주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보험사들은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 내리면서 자산운용 수익을 통한 재정 확충도 어려운 상태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산 운용 대부분을 국고채, 회사채 등으로 운용하고 있어 금리가 인하되면 수익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지속과 IFRS4 도입이 2년여 앞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보험사들의 유상증자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기적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상증자 외에도 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100층 도달한 롯데월드타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에 들어서는 롯데월드타워가 14일 100층에 도달했다. 롯데월드타워가 예초 목표했던 대로 2016년 말 완공되면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축물이 된다.

홍제동에 7년만에 새 아파트 '홍제 금호어울림' 분양

일반 분양 전 가구 전용 84㎡·내년 4월 입주예정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7년만에 새 아파트가 분양 중이다.

금호산업 건설사업부(이하 금호건설)는 홍제동 무궁화단지를 재건축한 '홍제 금호어울림'을 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

'홍제 금호어울림'은 지하 3층~지상 13층 10개동, 전용 59~84㎡ 총 296가구 규모의 중형급 단지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 84㎡가 일반분양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가 5개 타입으로 구성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홍제 금호어울림 아파트는 에너지 효율 1등급 아파트로 관리비 절감효과에 신경을 썼다. 고효율 콘덴싱보일러, 태양광 발전설비, 디지털 멀티온조절시스템(실별 온도조절기), 일괄소등·가스차단 스위치, 원격검침시스템, LED센서 등의 설계가 적용된다.

단지 바로 앞에는 안산 7㎞ 둘레길이 조성돼 조망권을 갖춘 게 특징이다. 단지 인근에는 현대홈익 유치원, 고은초·신연중이 도보 이용 거리 내에 있으며 반경 2㎞에는 한성과학고, 서울외국인학교, 정원여중, 홍은중 등이 위치해 있다.

서울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단지 도보 이용 거리 내에 있어 종로와 광화문, 신촌, 여의도 등 도심 접근이 용이하다.

생활편의시설과 문화시설도 갖춰져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서대문도서관이 위치해 있으며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자연사 박물관, 그랜드 힐튼 컨벤션센터 등 문화시설이 인접해 있다. 도보 2㎞내에는 홍제 인왕시장, 서울 적십자 병원, 주민센터, 서대문 구청 등이 위치해 있다.

홍제 금호어울림은 전가구 발코니 무료확장과 주방 펜트리, 전기 오븐렌지, 전동 빨래 건조대 등 유선사항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127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문정권 금호건설 소장은 "7년간 분양물량이 없었던 홍제동에 오랜만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로 전용 84㎡타입을 전체 일반 분양 물량으로 구성했다"며 "이 일대 10~20년된 노후화된 단지가 95%이상인 만큼 새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에게서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홍보관은 서대문구 홍은동 217-5번지 벽산빌딩 2층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6년 4월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홍제 금호어울림 투시도.

금감원 Q&A

보험 가입시 병력 등 알릴 의무 지켜야

Q 보험사 종합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최근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비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이전에 당뇨병 입원치료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에게 당뇨병 치료사실을 말했는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전 에 보험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등에 대해 사실대로 알릴 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하는 등 고지방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점으로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전에 보험설계사에게 과거질병 등에 대해 구두로 알렸다고 해서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한편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보장개시일부터 2년,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경과시에는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간에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지만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유한빛기자

증권사, '꽃보다 경품'

새봄맞이 백화점상품권·거래수수료 무료 쿠폰 등 푸짐

주요 증권사들이 새 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본격적인 대고객 마케팅에 일제히 돌입한 것이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타 증권사 주식을 옮기거나 동부증권 추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두드림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3월 말까지 진행하는 '두드림이벤트'는 타사 계좌에 보유중인 주식을 옮겨오거나 동부증권이 추천하는 금융상품에 3000만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에게 최대 2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한다.

거래 증권사를 변경할 목적으로 주식을 입고하는 고객이나 타사 계좌의 펀드를 이관하는 고객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사은품을 지급한다. 1월2일 이후 동부증권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입금금액과 매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사은 혜택을 제공한다. 단 주식입고나 신규고객의 주식매수는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동부증권 추천상품은 원금보장형 ELS 등 파생결합증권이나 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 그리고 신용등급 A등급 이상의 채권 등으로 구성됐다.

KB자산운용과 함께하는
K STAR ETF
거래 EVENT!
기간 2015.03.12(목) ~ 2015.04.10(금)
대상 NH투자증권 거래 고객
종목 KStar200(종목코드 148020)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3월 말까지 타 증권사 주식을 뱅키스 계좌로 옮길 경우 경품을 제공하는 '뱅키스 무브 무브'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타 증권사에 보유중인 국내 또는 해외주식을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계좌로 500만원 이상 대체입고하면 1만원 상품권을 제공하고 3억원 이상 입고시 최대 12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한다. 또 거래금액에 따라 뱅키스 신규고객에게는 최대 5만원 상품권을, 기존 고객에게는 최대 5만원 상당의 거래수수료 무료 쿠폰을 추가로 증정한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계좌는 전국 15개 은행의 지점에서 개설할 수 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해 계좌를 개설해주는 뱅키스 다이렉트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오는 4월 10일까지 ETF 거래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일 KStar200을 2만주 이상 거래한 고객 선착순 10명에게 백화점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NH투자증권을 거래하는 고객 누구나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KB자산운용의 Kstar200 ETF는 한국시장의 대표 시장지수인 KOSPI200지수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되는 ETF로써 KOSPI 200지수에 저렴한 보수로 투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금융감독원

신한BNPP중국본토 전환사채펀드 판매

중국 채권 '안정성 + 성장성'
신한BNPP중국본토RQFII 전환사채펀드
150억 한도 선착순 판매!

신한금융투자가 신한BNPP중국본토RQFII전환사채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채권혼합]을 150억원 한도로 선착순 판매한다.

'신한BNPP 중국본토 RQFII 전환사채1호'는 공모 펀드로는 업계 최초로 중국본토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펀드다.

국내의 비슷한 신용등급의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수익이 기대되는 위안화 채권시장에 투자하며 동시에 중국 전환사채에도 투자함으로써 채권투자와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따른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도 기대 가능하며, 꾸준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중국본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만기가 정해져 있는 예금 또는 채권에 투자할 경우 만기 당일 환율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펀드의 경우 적절한 시점을 투자자가 선택해 이익을 실현할 수 있어 위안화 가치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고객에게 더욱 유리하다.

'신한BNPP 중국본토 RQFII 전환사채 1호'는 현지 채권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차별화하기 위해 신한BNPP 홍콩법인이 위탁운용하게 되며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China Life Asset Management에서 신용분석 자문을 받아 신용위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 펀드의 최소 가입금액 제한은 없으며 총 보수는 1.529%(Class C 1기준). 90일 보유 이후 환매시 환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한금융투자 전 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에서 가입 가능하다. /채신화기자

금리인하·상권발달·희소성… 합정·홍대 오피스텔 주목

"대우 푸르지오 기준 재편 전망…월 임대료 90만원될 듯"

서울 홍대입구역과 합정역 인근 오피스텔이 상권의 급속한 발달과 금리인하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13일 분양을 시작한 마포한강 2차 푸르지오 오피스텔이 이 일대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권형성이 잘 돼 있는 홍대입구역~합정역 인근 오피스텔은 빌라보다 환금성이 뛰어나다는 점과 강남보다 유망한 상권이라는 분석이 잇따르며 향후 되 팔 때까지를 고려한 실수요자들에게 인기다.

지난 13일 대우건설은 합정역 인근에 마포 한강 2차 푸르지오 오피스텔' 견본주택을 선보이며 분양에 돌입했다. 이날 대우건설에 따르면 주말 3일간 1만5000여명의 내방객이 방문했다.

오피스텔 분양을 맡고 있는 천동진 미드미 D&C 상무는 "서울 한복판지역에서 오피스텔 공급과잉이 우려되지만 홍대~합정은 예외적인 지역"이라며 "홍대 인근에 대형 브랜드 오피스텔이 공급되는 것은 10년 만이라 분양 전부터 분위기 많았다"고 밝혔다.

이날 대학생 자녀와 함께 견본주택을 찾은 이 씨(50)는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딸이 있는데 내년에 동생도 서울살이를 할 것을 대비해 같이 살 곳을 찾고 있다"며 "자녀들이 대학 졸업하고 결혼해 나가더라도 세를 줘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분양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그 때 쯤이면 매매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합정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근방에 있는 KCC웰츠타워, 메세나폴리스, 동원트레벨, 명지휘트니스 오피스텔 등은 첫입주가 있은지 9~10년 정도 됐는데 그간 이렇다 할 오피스텔 공급이 없었다"며 "KCC의 경우 4000만원 올랐고 명지의 경우 7000만원 가량 뛰었는데 푸르지오 덕에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근 또 다른 공인중개사 역시 "푸르지오 입주가 내년 8월인데 그 때까지 인근 오피스텔 매매 물량은 줄어들 것"이라며 "푸르지오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됐는데 반사이익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매매 물건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반적인 임대료는 푸르지오 오피스텔 분양가 기준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며 "푸르지오의 경우 월 임대료 90만원 선이 수익률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인 홍대입구역 인근 오피스텔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04년 첫 입주를 시작한 효성 홍익인간과 LG팰리스 오피스텔도 13일 기준 매물로 나와있는 물량은 없었다. 인근 한 공인중개업자는 "홍대입구역 인근은 10년 전보다 7000만~8000만원 올랐고 차츰 합정역으로 프리미엄이 이동하고 있지만 두 상권을 하나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푸르지오는 이 지역에 오랜만에 들어서는 새 오피스텔이라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다"며 "이미 이 지역에 한 두 채 가지고 있는 투자자 10명 중 9명은 분양에 다 참여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하늘기자 kmc@

정준양 포스코 정조준 권오준까지 침몰위기

정 전 회장 출국금지… MB고위인사들 유착 의혹도

권오준(사진) 포스코 회장'이 어위기에 처했다.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사건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포스코그룹 계열사로 확대되고 있다. 포스코의 철강제품을 가공 판매하는 계열사인 포스코P&S의 탈세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사건은 전임 정준양 회장과 권오준 회장 모두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온다. 사내 감사 등 통해 사전에 비리 사실을 알고도 자리에 안연해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뒤를 봐준 사람이 MB정권의 핵심 인사라는 의혹 때문에 사건은 일파만파다. 검찰의 부패 척결 의지의 첫 시험대는 고구마 줄기처럼 계열사로 수사망이 넓어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당시 포스코건설의 해외 현장 임직원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게 된 원인이다. 포스코건설 일부 임원은 2009~2012년 베트남 건설 사업을 벌일 당시 현지 하도급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0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드라마틱한 압수수색은 포스코가 증거 은닉을 못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권 회장이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던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검사 5명을 포함한 40여명의 수사 인력을 급파해 포스코건설 본사와 임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기지를 발휘했나 재빠른 수사는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회계자료, 내부 서류 등을 모두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임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정확한 리베이트 규모와 비자금 액수, 사용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문제는 비자금의 '사용처'다. 비자금이 포스코건설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적 횡령'이 아니라 정치권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정 전 회장과 포스코건설의 전 현직 경영진 대다수가 출국 금지됐다. 검찰의 포스코건설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신호로 해석된다.

검찰은 정 전 회장 시절 포스코가 자회사 수를 크게 늘린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베트남 건설사업 과정에서 조성된 100억원대의 비자금 의혹의 일차적인 수사 대상이라면서도, 비자금만 보는 것은 아니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세로 이명박 정부 시절 포스코 회장에 임명된 정 전 회장은 관련 업체들을 공격적으로 계열사에 편입시켰다. 일부 업체들은 시가보다 비싼 금액에 인수해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전 회장이 인수한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경영상태가 부실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 재임 당시 생겨난 포스코 계열사 상당수가 현재 자본잠식 상태"라며 부실기업 인수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계열사들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특혜 또는 부실 인수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시 정권 실세로 분류됐던 정 전 회장과 이명박 정부 실세들의 정관계 유착 여부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회장은 2007년 포스코 사장이 된 뒤 이듬해인 2008년 11월 포스코건설의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불과 3개월 만인 2009년 2월 돌연 포스코 회장으로 선임됐다. 당시 정 전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의 힘으로 포스코 회장이 됐다는 낙하산 구설에 시달렸다.

검찰은 현재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핵심 경영진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포스코 경영진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준양, 4년간 계열사 50여개 인수 쇼핑 수준… 부실 투성이 알고 했나 모르고 했나?

2007년 20여개였던 포스코 계열사는 정 전 회장 부임 뒤 70여개로 늘었다. 정 전 회장 재임 기간 늘어난 계열사 41곳 중 18곳은 자본잠식됐다.

성진지오텍은 정 전 회장이 인수한 대표적 부실기업이다. 포스코는 2010년 플랜트 설비 업체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2013년 자회사인 포스코플랜텍과 합병했다. 인수 당시 성진지오텍은 2000억원 가까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포스코는 시가보다 비싸게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등 비정상적 인수를 감행했다. 검찰은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한 과정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때는 경쟁사보다 2000억원 이상 많은 3조4000억원을 써내 고가 인수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포스코의 재무구조가 나빠질 것으로 보고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포스코P&S 탈세의혹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고발을 받아 수사 중이다. 포스코P&S는 포스코 생산한 철강제품을 가공해 판매하는 회사다. 국세청은 2013년 포스코P&S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뒤 탈세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포스코P&S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자체 감사를 통해 해외 현장 임원들의 비자금 형성과 횡령 정황을 포착했다.

포스코건설 감사실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황태현 사장에게 보고했다. 황 사장은 지난해 8월 문제의 두 임원을 인사조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본사 간부로 재발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주인 없이 공기업처럼 운영되는 포스코는 인사도 물려준다. 정 전 회장이 퇴임하던 시기에 있던 임원 중 대다수가 권 회장 체제에 그대로 연속됐다. 특히 현재 등기임원인 12명 중 장인환, 이창희, James B Bemowski, 신재철, 이명우 등 5명은 정 전 회장 시절부터 자리를 지켜왔다.

현재 포스코는 사외이사로 선우영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선임한 상태다. 현직에서 제이유 사건 등을 수사 지휘한 선 전 검사장은 지난해 3월 주총에서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이 또한 공교롭게도 수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 방패막이로 섰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김승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삼성 미래전략실 TF인력, 계열사로 '원대복귀'… 왜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의 태스크포스(TF)에 파견돼 일하던 직원 대다수가 최근 원소속 계열사로 돌아갔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미래전략실 산하에 조직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여러 TF에 분산돼 있던 인력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순에 걸쳐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제일기획 등 각자 계열사에 복귀했다.

이번에 복귀한 인력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지만 미래전략실에서는 지난달 설 연휴 직후 최지성 실장(부회장)의 지시로 TF 등에 몸담은 인력의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실장은 TF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필수 인력만 남기고 대다수를 계열사의 현업에 복귀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과거 회장 비서실(1959~1998년), 구조조정본부(1998~2006년), 전략기획실(2006~2008년)의 맥을 잇는 조직이다.

이건희 회장의 핵심 참모조직으로 그룹 경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지휘부 기능을 맡아왔다.

재계에서는 삼성 미래전략실 TF 인력의 계열사 복귀에 대해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체제에서 참모조직을 좀 더 슬림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비대한 조직보다는 소수정예로 의사결정이 빠른 전략적 조직을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6팀, 1단, 1실 체제로 운영되니 ㄱ 현재는 5팀(전략1팀, 전략2팀, 경영진단팀, 기획팀, 인사지원팀, 커뮤니케이션팀, 준법경영팀, 금융지원팀) 체제로 짜여 있다.

팀별로 많게는 3~4개에서 적게는 1~2개 TF를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전략실 TF는 신사업 추진 등 특정 사안에 따라서는 계열사 TF를 지휘하거나 협업을 하기도 한다. TF 사무실은 삼성 서초사옥 외에도 계열사 사옥 곳곳에 흩어져 있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송정훈기자 sjh@

'간병지원 로봇개발' 등 다부처공동기획 사업 확정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열린 제7회 다부처공동기획협력특별위원회(다부처특위)에서 2016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시전기획연구 대상사업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특정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 정부 부처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함께 추진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다.

다수 부처가 사업 공동 추진과 기획-수행-관리-평가를 하게 된다.

미래부에 따르면 관련 부처 간 공동연구 기획 전 단계인 사전기획 연구 대상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3개 분야 총 13건이다.

사회문제해결 분야 사업에는 ▲사이버 재난 대응 정보인프라 기술 ▲첨단 센서기반 재난이력 조기경보시스템 ▲우리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등 5건, 미래대비 기술 분야로는 ▲영관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간병지원 로봇시스템 ▲고도답지능력 기반 극한상황 작업용 무인화 시스템 개발 등 6건이다.

또 중소·벤처 활성화 분야에는 ▲바이오·메디컬 3D프린팅 용 복합 의료기기 ▲신약재신업 국제경쟁력 강화 등 2건이다.

다부처특위에서 확정된 시전기획 연구 대상사업은 사업타당성과 다부처 협력체계 등이 검토된 뒤 공동기획 연구를 거쳐 2016년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다부처특위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개선안'도 심의해 확정했다.

미래부는 올 상반기 내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고시)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illegible]기자 msunlu@

단통법 후 이동통신 가입요금 20%하락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 수준이 2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은 평균 3만7007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7~9월(4만5155원) 대비 18.0% 내려갔다.

이 수치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으로 이동서비스에 가입할 때 고객들이 부담하는 평균 실질요금액으로 선불·부가서비스 요금 등은 제외됐다.

이동서비스 가입요금은 단통법 시행 이래 오르락 내리락하며 다소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락 곡선을 그리는 추세다. 이는 이용자들이 고가 요금제보다 중저가 요금제를 선호하는 분위기와 맞물려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4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90.0%에 달한 반면에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10.0%에 불과했다. 이용자 10명 가운데 9명은 중저가 요금제를 택했다는 얘기다.

중저가 요금제가 90%선을 돌파한 것도, 고가 요금제가 10%선을 위협받는 것도 이통시장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중저가 요금제 중에서도 3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가 확실한 대세로 자리잡아가는 모양새다.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단통법 시행 초반 불안정한 시장 분위기 속에 다소 부침을 겪었지만 이후 꾸준히 세를 불려 지난달에는 60%선에 안착했다.

여기에는 고가-저가 요금제 간 공시지원금 격차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시장 분위기상 앞으로도 중저가 요금제 강세, 고가 요금제 약세 기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입요금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가계통신비 부담은 기대만큼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선준기자

LG유플러스, 홈보이 신규서비스 3종 출시

LG유플러스는 교육·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보이에서 '이마트몰 할인', '유아홈스쿨', '매거진' 등 콘텐츠 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홈보이에서 이마트몰 할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쇼핑을 하면 최고 12% 할인 쿠폰과 무료 배송 혜택을 준다. 기존 이마트몰 회원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아홈스쿨은 아이가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누리과정 연계 학습 콘텐츠다. 월 이용요금은 3000원으로 다른 앱 대비 70% 가량 저렴하다.

이 밖에 매거진 앱은 국내 최다인 200여종의 매거진 콘텐츠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신규 서비스 개시 기념으로 홈보이에서 이마트몰을 이용하면 3월 한달 간 12% 할인 쿠폰을 한 장 더 선물한다.

/유선준기자

LG유플러스, 용산구 청소년 위한 장학금 전달

LG유플러스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용산구 내 자립청소년 지원을 위한 임직원 기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 1200여만원은 지난해 말 LG U+ 임직원들이 용산구 내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학비 지원을 위한 기부릴레이를 통해 모금한 것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소중하게 모은 성금을 전달해주신 LG U+에 감사하며 취지에 맞게 저소득 청소년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LG U+ CR전략실 유필계 부사장은 "LG U+ 임직원들이 용산구와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모은 기금인 만큼 꿈을 꾸며 노력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SK, 창조경제 협력 '결실'

SKT 파트너 벤처중기, 해외시장 개척 '활발'

SKT와 함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5'에 참가했던 최봉원 나노람다 대표(왼쪽)가 지난 3일(현지시간) 현장 전시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SK그룹의 지원을 받는 중소벤처기업들이 해외업체로부터 개발품·개발기술 구매 요청을 받는 등 해외시장 개척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SK그룹이 설립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배출한 입주기업들의 약진이 이어져 SK그룹이 창조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T와 함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에 참가했던 ㈜아이에스엘코리아는 지난해 국내에 출시한 휴대용 전자칠판 솔루션인 빅노트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이번 MWC에서 첫 선을 보이고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나섰다. 이 회사는 그간 국내 공교육 시장과 학원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공략해왔으며 이번 해외시장 진출을 계기로 제한적인 국내 수요 장벽을 넘어설 계획이다.

이번에 SKT의 파트너로 MWC에 참여했던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인 나노분광센서 제작업체인 ㈜나노람다도 MWC 기간 중 약 130여건의 현지 미팅을 가진데 이어 국내로 돌아온 뒤에도 해외업체 3곳과 구매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나노람다는 이번 MWC 전시 현장에서 화웨이(Huawei), IBM, 액센츄어(Accenture), 보쉬(BOSCH)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과 미팅을 가졌다.

SKT와 함께 공군 무선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참여 중인 ㈜사이버텔브릿지도 기존 주파수공용통신(TRS)이나 무전기를 대체하는 롱텀에볼루션(LTE) 기반의 IP PTT(Push To Talk) 재난망 솔루션으로 해외 시장을 두드렸다. 사이버텔브릿지는 모토롤라·노키아와 PTT 솔루션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을 협의했으며 미국 LA경찰서와 911관련기관에 서비스 데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SKT는 MWC 전시에 처음으로 참가한 2010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으로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과 공동으로 참가해 국내중소 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SKT는 중소 파트너사들에게 전시 공간 대여와 전시 부스 설치 관련 비용을 비롯해 항공권 등 행사 참가 경비를 지원한다.

김정수 SKT 실장은 "글로벌 진출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국내 중소기업 입장에서 전 세계 ICT 관계자들이 모이는 MWC 참가는 해외 진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SKT는 동반성장 상생 차원에서 협력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KT, 첨단 ICT로 장애인 올림픽 파트너 참여

KT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리는 '제1회 2018 평창 패럴림픽 데이'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평창 패럴림픽 데이는 평창 장애인올림픽 대회(패럴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올해 1회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3년간 매년 진행된다.

KT는 패럴림픽 데이에 참여하는 장애인들도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동계 스포츠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홍보 부스를 마련했다. 특히 360도 카메라를 장착한 스키어가 실제 스키를 타며 촬영한 영상을 노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실제 스키를 타는 것과 같은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VR(Virtual Reality) 체험존을 마련했다. 또 올림픽 경기를 실감나게 볼 수 있는 기가(GIGA) 초고화질(UHD) TV와 5세대(5G)를 통해 구현되는 첨단 ICT 올림픽의 모습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KT 기업영업부문 신규식 부사장은 "지난해 7월 KT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통신 파트너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KT는 평창에서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선보이고 기가 인프라와 5G를 기반으로 새로운 ICT 올림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갤S6 엣지있게 만든 배터리의 비밀

슬림 디자인 위한 파우치형 배터리·케미칼 소재 적용

삼성SDI의 첨단 배터리와 소재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S 시리즈의 슬림화를 이끄는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갤럭시S6는 갤럭시S 시리즈 중 처음으로 파우치형 배터리가 적용됐다.

15일 삼성SDI에 따르면 얇아진 배터리와 기판 틀을 장착한 갤럭시S6는 S5에 비해 두께가 1.3mm 줄었다.

2010년 출시된 갤럭시S와 비교하면 3.1mm(약 30%) 얇아졌다.

일체형 디자인을 채택하면서 배터리 착탈식 스마트폰 모델에 쓰였던 각형 배터리가 파우치형으로 교체됐기 때문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형태에 따라 크게 원형, 각형, 파우치형으로 구분된다.

파우치형 배터리는 알루미늄캔 대신 3년 카레의 포장재 같은 얇은 알루미늄 파우치에 담는다.

각형에 비해 얇게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 슬림화 디자인 적용이 용이하다.

최근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의 슬림화 경향에 따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갤럭시S6의 날씬한 디자인을 만든 또 다른 요소는 케미칼 소재다.

외장재는 플라스틱 소재에서 메탈 소재로 바뀌었지만, 제품 내부의 기판 틀을 만드는 데에는 고부가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됐다.

기판 틀에는 폴리아미드(PA)에 유리섬유(GF)를 첨가한 고강성 플라스틱이 적용됐다.

이는 얇은 두께로도 견고한 뼈대 역할을 해 갤럭시S6의 슬림한 디자인을 도왔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한편 갤럭시S6 엣지 모델에는 삼성SDI가 독자기술로 개발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발광소재인 '인광그린호스트'가 적용됐다.

인광그린호스트는 OLED에서 빛의 삼원색 중 녹색 빛을 내는 핵심 소재다.

그동안 외국 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해 오다가 지난해 삼성SDI가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해 양산하고 있다.

아울러 엣지 모델에는 곡면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해 유리 봉지재 대신 유기재료를 기반으로 한 박막봉지재(TFE, Thin Film Encapsulation)가 적용됐다.

유리대신 TEF가 적용된 갤럭시S6 엣지의 곡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 휘어지는 부분은 충격에 약하고 OLED 내부의 유기물질이 산소나 수분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이에 유리보다 유연한 성질을 갖고 있는 TFE가 대신 사용된다.

TFE는 유리보다 가공성이 좋고 강도가 높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주로 쓰인다.

삼성SDI 관계자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의 혁신 뒤에는 항상 배터리,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고기능 플라스틱 등 기술이 있었다"며 "전기자동차,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친환경·고분자 케미칼 등 신기술 개발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실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LG G플렉스2, 그립감 '굿'·발열 '배드'

꼼꼼 IT 리뷰

LG전자의 커브드 폰 'G플렉스2'를 일주일 가량 사용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제품을 건네 받았을 때 가장 테스트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립감과 동영상, 발열이었다.

우선 그립감은 오목한 손바닥 모양과 비슷해 안정적으로 손에 쥘 수 있다. 꼴곤 한 손에 쥐기엔 애매한 크기다. 그러나 무엇보다 만족했던 부분은 제품이 휘어있어 바지 주머니에 넣으면 몸의 곡선에 맞다. 평평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을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제품을 가로로 눕혀 휘어진 화면으로 동영상을 재생했을때 몰입감도 좋았다. 휘어져있는 화면이 빈시공을 확실히 줄여준다. 빛을 피해 각도를 조절할 필요 없이 편하게 시청할 수 있다.

셀카족을 위해 '제스처 샷'(손바닥을 펼쳤다가 주먹을 쥐면 자동 촬영되는 기능)의 기능은 강화시켰다.

여기에 삼성전자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는 일체형 배터리를 적용해 메모리 확장이 안되는 반면 G플렉스2는 뒷커버를 열 수 있도록 설계해 배터리는 일체형이지만 나노 유심 슬롯과 마이크로SD 메모리 슬롯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았다. 아이폰과 비교했을때 안드로이드 폰의 장점으로 꼽혔던 DMB가능이다. 휘어진 몸체를 완성하기 위해 DMB안테나를 제외시켰다. 때문에 G플렉스2는 별도의 이어폰이나 안테나를 연결해야 DMB시청을 할 수 있다.

LG전자가 G플렉스2 출시와 함께 논란이 됐던 부분은 바로 발열 논란이다. 제품 테스트를 위해 스마트폰 온도 측정 앱 'CPU TEMP'와 [illegible] 글로리-볼펜을 설치했다. 평상시 라이트하게 사용할 경우 32~35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게임을 실행하자 30분만에 온도는 42도까지 상승했다.

커브드 기술을 적용해 그립감과 몰입감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지만 DMB안테나를 제외시킨 점과 발열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삼성·LG전자 초고화질 TV로 신흥 시장 공략

중국·브라질서 프리미엄 제품 대거 선보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프리미엄 TV를 앞세워 신흥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은 중국, LG는 브라질이다.

삼성전자는 11일부터 14일(이하 현지시간)까지 열린 중국 상하이 가전박람회에 참가해 2015년형 SUHD TV로 중국가전협회가 선정하는 '중국 가전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개막 첫날부터 2만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해 새롭게 소개된 SUHD TV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콘텐츠를 자체 안고리즘으로 분석해 선명한 화질로 향상하는 중국 현지 특화기능 '상시 쉬에우(선명한 화면을 보니 눈이 즐겁다)'를 이번 전시회에서 새롭게 공개했다.

LG전자는 중남미 시장 공략에 나섰다. LG전자는 12일 브라질 상파울루 보르본 이비라푸에라 호텔에서 2015년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130여명의 취재진과 1000여명의 현지 거래선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LG전자 측은 전했다.

LG전자는 77인치·65인치·55인치 4개 모델의 올레드TV와 105인치에서 42인치에 이르는 울트라HD TV 등을 선보여 현지 프리미엄 TV 제품군을 지난해에 비해 50%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는 중남미 고객들의 특성을 반영해 '축구전용 AV모드', '타임머신 기능', '응원모드' 등을 제품에 새롭게 담았다.

/김성훈기자

삼성전자가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중국 상하이 가전박람회에서 삼성 SUHD TV를 선보였다.

LG전자가 12일 (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2015년 TV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현지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LG전자 슈퍼 울트라HD TV의 선명한 화질을 즐기고 있다.

삼성전자 초경량 노트북 시장서 점유율 상승

초경량 노트북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 가운데 삼성전자가 노트북9 시리즈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초경량'과 '인체 공학 키보드' 기능을 적용해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노트북9 시리즈'가 지금까지 3만대 이상 판매되는 인기에 힘입어 올 1~2월 국내 노트북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10% 이상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노트북9 시리즈 모델 가운데 특히 '노트북9 2015 에디션'과 '노트북9 Lite(라이트)'의 인기가 가장 높다. 무게는 950g에 불과하며 미국 안전규격 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로부터 인체 공학 키보드 인증을 받은 곡선형 키캡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곡선형 키캡은 타이핑할 때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노트북9 시리즈는 최근 노트북·PC 시장에서 주목받는 울트라북에 해당한다. 울트라북이란 태블릿과 노트북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제품으로, 통상 두께가 21mm 이하인 노트북을 의미한다.

/김성훈기자

현대百, 디큐브시티 임차 계약

가족형 백화점 운영 | 케레스타는 아웃렛 등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3·사진)이 공격적 확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13일 제이알(JR)투자운용과 신도림 디큐브시티 중 디큐브백화점에 대한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이 임차하는 디큐브백화점 건물은 지하 2층~지상 6층 등 총 8개 층에 전체면적 11만6391㎡, 영업면적 5만2569㎡ 규모로 임차기간은 20년이다.

지하 8층~지상 42층 규모의 신도림 디큐브시티에는 디큐브백화점과 호텔, 사무실, 아트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이번 계약 체결로 현대백화점은 전국에 총 14개의 백화점을 운영하게 됐다. 이 가운데 절반인 7개 점포를 서울에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큐브백화점은 IT 시스템 교체 등 운영 준비 기간을 거쳐 5월부터 현대백화점 신도림점(가칭)으로 재단장한다.

현대백화점은 디큐브백화점의 점포 콘셉트를 기존 '영(젊은층·Young)' 중심에서 '패밀리(가족·Family)'로 바꾸고, 인근에 있는 프리미엄 백화점 콘셉트의 현대백화점 목동점과 차별화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기존 브랜드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8월부터 차례로 아동·가정용품·식품 부문 등 가족형 상품 기획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앞서 지난 13일에는 파인트리 자산운용과 쇼핑몰 동대문 케레스타(구 거평프레야)의 임차 계약도 체결했다.

임차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9층까지 전체면적 7만4㎡(2만2400평), 영업면적 3만9600㎡(1만2000평)이다.

현대백화점은 현재 리뉴얼 공사가 진행 중인 동대문 케레스타를 도심형 아웃렛이나 면세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김포에 프리미엄아울렛을 열며 4년 만에 신규 점포를 내는 등 불황으로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신규 출점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공격적인 확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8월에는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개장하고 9월에는 장지동 가든파이브를 임차해 현대아울렛 송파점으로 운영 예정이며, 2016년에는 인천 송도에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송도점을 열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기획조정본부 김창식 상무는 "디큐브백화점과 동대문 케레스타는 환승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해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유동인구가 많아 대규모 집객이 가능해 성장성이 높다"며 "앞으로 현대백화점만의 차별화된 상품기획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역 내 쇼핑 문화의 랜드마크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kora@

전자제품 사고 기부도 하고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홈플러스와 LG전자가 함께 진행하는 '착한 소비' 캠페인을 알리고 있다. 홈플러스와 LG전자는 오는 4월 5일까지 전국 홈플러스 점포에서 LG전자의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이 판매될 때마다 제품 일부를 장애인 재활 치료 지원을 위해 기부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제공

오비맥주, 청소년 음주예방 캠페인

가족대화 창작연극 제작·보급 · 올해 카스·OB 수출목표 2배로 확대

오비맥주가 청소년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프레데리코 프레이레 오비맥주 사장(사진)은 지난 13일 종로구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한국메세나협회, 극단 모두무대와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고 가족대화(이하 패밀리토크)를 주제로 한 창작연극을 공동 제작해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상시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작한 청소년 음주예방 운동을 확대하고 음주 문제와 가족 간의 대화를 다룬 연극을 만들어 공연한다.

캠페인 예산도 지난해 대비 상향한 2억원 수준으로 확대했고, 멘토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가 이번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참여했다.

오비맥주는 우선 화통(話通, 대화로 통하라)을 주제로 부모와 자녀 간 효과적인 대화방법을 일러주는 다양한 스토리의 연극을 옴니버스 형태로 제작해 7월부터 전국에서 순회공연을 할 예정이다. 대안학교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등을 찾아다니며 부모와 자녀 등 가족 단위 관객들에게 무료 관람의 기회도 제공한다.

프레이레 사장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음주문제에 대해 무관심과 관용으로 대처하다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적절한 가족 대화를 통해 청소년 음주문제를 미리 예방해보자는 것이 패밀리토크 캠페인의 기본취지"라며 "이번 연극 프로그램이 많은 부모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류 선도기업으로서 건전 음주캠페인뿐 아니라 환경, 나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이행을 통해 회사의 비전이기도 한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단순히 실적제고와 수익창출에 집중하기보다는 국가와 사회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좋은 기업·착한 기업으로 평가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비맥주는 올해 카스와 OB 브랜드 제품의 수출 목표를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해외 판매에 공격적으로 나선다. 한국 소비자들 다양해진 입맛을 고려해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도 수입한다.

프레데리코 프레이레 오비맥주 사장은 이날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에는 (오비맥주의) 수출이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위주였지만 올해부터는 카스·OB 등 고유의 브랜드 수출을 늘리는 게 중점 목표다. 올해 카스·OB 브랜드 수출 목표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높게 잡았다"고 말했다.

2013년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맥주 판매순위에서 카스는 스노우(중국), 칭타오(중국), 아사히(일본) 등에 이어 15위를 기록했는데 2~3년 안에 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수출량 1800만 상자 가운데 카스·OB 브랜드 수출이 150만상자 정도였다"며 "올해는 이를 300만 상자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레이레 사장은 아울러 "새롭고 다양한 맥주 맛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에 해당하는 브랜드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판매하는 수입 브랜드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 다양한 패키지를 선보여 '스텔라 아르투아'와 '코로나'를 슈퍼 프리미엄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시장점유율을 알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내부에서는 여러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오비맥주의) 시장점유율이 2013년보다 2.5~3% 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청량함으로 정신을 맑게"

봄 춘곤증 날려주는 탄산음료 눈길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본격적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춘곤증 해소에 도움을 주는 탄산음료가 각광을 받고 있다. 졸음·피로감 등을 몰고 오는 춘곤증을 이겨내기 위해 청량감으로 정신을 맑게 해줄 음료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음료업계에서는 무알코올 음료·탄산수·탄산드링크 등 다양한 탄산음료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의 '하이트제로 0.00'은 맥주의 맛과 청량감을 그대로 담은 알코올 함유량 0%의 무알코올 음료다. 이 제품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70여 곳에서 판매되고 있어 운전 중 기분전환이 필요할 시 휴게소에 들러 구입할 수 있다.

탄산수는 당분과 카페인이 없어 건강과 다이어트에 민감한 이들에게 탄산음료 대용으로 인기다. 하이트진로음료의 프리미엄 탄산수 '디아망'은 냉장 주입 공법을 사용해 탄산의 청량감을 극대화했다.

과즙이 함유된 탄산음료는 나른한 봄날 오후 기분전환으로 제격이다. 산펠레그리노는 산펠레그리노 베이스에 시칠리아산 시트러스 과일 원액을 블렌딩한 '폼펠모' 캔을 출시했다. 폼펠모 캔은 시칠리아산 그레이프 원액을 16% 함유한 과일주스로 만들어져 상큼한 맛이 특징이다.

롯데칠성음료도 최근 망고과즙을 10% 함유한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망고'를 선보였다.

에너지드링크는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과다하게 복용하면 정상적인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지만 적당량을 마시면 춘곤증 해소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동아오츠카의 '오로나민C'는 다른 비타민 음료와 달리 탄산을 넣어 청량감을 배가시켰다.

/김수정기자 [illegible]

식품업계 봄 품은 제품 전쟁

봄나물·딸기 등 제철 상품 출시 봇물

식품·외식업계가 봄을 맞아 제철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

청정원이 최근 선보인 '밥물이 다르다' 냉동 나물밥은 쥐에서 다듬기 힘든 생(生)나물을 듬뿍 넣어 지은 밥이다. 3종으로 출시된 나물밥 중 녹차 곤드레나물밥', 둥글레 취나물밥'은 봄에 제철을 맞이하는 곤드레나물과 취나물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특히 건나물이 아닌 국내산 생나물만을 사용해 나물의 영양과 풍미·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대상FNF 종가집이 선보인 '데이즈 우엉조림'은 3월까지가 제철인 우엉을 재료로 했다. 우=대박 엄마 견고추 등으로 잡사간 우려낸 홈메이드식 조림간장을 사용해 우엉조림의 고소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냅 냉이로 만든 술도 있다. 배상면주가가 한정으로 출시한 '냉이술'은 배꼽 땅끝마을 참냉이로 빚은 것으로 로제 와인을 연상케 하는 고운 빛깔에 냉이의 독특한 향과 알싸한 맛이 특징이다. 냉이술은 봄에만 한정 생산해 소진시까지 판매된다.

본도시락도 제철 냉이와 달래를 활용한 봄 신메뉴 2종을 출시했다.

제철과일인 딸기를 활용한 신제품도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이 외에 베스킨라빈스는 3월 이달의 맛으로 우유에 빠진 딸기 와 이달의 케이크 '딸기 마운 을 출시했다.

파리바게뜨는 '딸기 듬뿍 티라미스', 순수(秀)우유 딸기' 등 케이크를 비롯해 '그대로 딸기를', '달콤바삭 딸기 한입' 등 17종의 딸기 제품을 선보였다.

뚜레쥬르는 딸기잼을 넣어 만든 '그대로 딸기를', '딸기모카크림빵', '딸기 소보루 그린빵', '달콤바삭 딸기 한입', '별난 딸기 페스츄리', '미니딸기 페스츄리', '달콤 슈크림 딸기 브레드' 등 다양한 빵 제품이 출시됐다.

잠바주스는 국내산 생딸기를 즉석에서 통째로 갈아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스트로베리 주스', 딸기와 함께 요거트를 블렌딩 해 맛은 물론 영양 밸런스까지 고려한 '스트로베리 요거트', 스무디에 그라놀라와 생딸기를 얹은 '스트로베리 파페' 등 국내산 생 딸기로 만든 음료 3종을 출시했다.

GS25가 선보인 '딸기샌드위치'는 제철 딸기가 나오는 오는 5월까지만 판매하는 한정상품으로 식빵에 생딸기와 생크림, 파인애플을 토핑한 디저트용 샌드위치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보온성·화사함 갖춘 경량다운 어때요?

간절기 시즌을 겨냥해 여성복 브랜드가 다양한 경량다운을 선보이고 있다. 화사한 색감을 강조한 디자인은 물론 보온성과 가벼운 착용감을 갖춘 제품을 출시해 여성을 공략한다.

크로커다일레이디는 쌀쌀한 초봄에 착용하기 좋은 화사한 색감의 경량다운을 출시했다. 고밀도 초경량 원단을 사용해 가벼우면서도 보온성까지 갖춰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봄 날씨에 착용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색상은 옐로우·오렌지 2종이다.

지센은 봄 시즌 따뜻하고 화사하게 걸치기 좋은 다운 재킷을 출시했다. 퀼팅 디자인과 핀을 덮는 여유 있는 길이감으로 한층 보온성을 높였다. 라운드넥을 사용하고 허리라인을 잡아주어 발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샤트렌이 선보인 멜팅 숏 경량다운은 카라 부분에 라인을 살려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주고 허리라인이 잘록하게 들어가 착용 시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 디자인이 깔끔해 무난하게 걸칠 수 있는 제품이다.

크로커다일레이디 디자인실 신혜경 디렉터는 "봄에 입을 경량다운으로는 겨울 시즌 제품과는 달리 바람막이의 기능을 갖추면서도 착용감이 가벼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거기에 봄과 어울리는 화사한 색감까지 갖춘 제품과 함께라면 변덕스러운 봄 날씨가 두렵지 않은 경쾌한 경량다운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크로커다일레이디 제공

"익힐 필요 없어요"…이색 간편식 쏟아진다

바로 먹는 생어묵·냉장 소시지, 볶지않는 스파게티 소스

복잡한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이색 간편식들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익힐 필요가 없는 생어묵이 있는가 하면 비비기만 하면 완성되는 스파게티, 차갑게 먹는 냉장 소세지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제품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이나 간편함을 중시하는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풀무원의 프리미엄어묵인 '알래스칸특급'은 청정 알래스카 해역에서 어획된 100% 자연산 명태순살로 만든 A등급 이상의 연육을 사용한 '바로 먹는 생어묵'이다. 이 제품은 알래스카수산물협회가 인증한 명태의 순살을 사용하고 밀가루를 비롯해 합성보존료, 합성착향료, 산화방지제 등 6가지 합성첨가물을 넣지 않아 바로 먹어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뚜기의 '비비게띠'는 파스타면이 담긴 그릇에 소스 한 봉지를 부어 비비기만 하면 완성되는 제품이다. 면과 함께 볶아내야 했던 기존의 스파게티 소스와는 달리 프라이팬이 없어도 면에 비비기만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소스는 토마토·까르보나라·알리오 올리오 갈릭할라피뇨 등 총 4가지 맛으로 파스타 외에 리조또 소스나 바게뜨 빵을 찍어 먹는 소스로 활용할 수 있으며 라면 사리와 곁들여 즐기는 것도 좋다.

냉장 소세지는 보통 불에 익히거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해 따뜻하게 데워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CJ '미스터콘'은 조리할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냉장 보관해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먹으면 탱글탱글한 옥수수 알갱이의 식감과 함께 옥수수 고유의 풍미가 더욱 배가된다.

풀무원 어묵사업부 김성모 팀장은 "바로 먹는 제품들은 별다른 조리 과정이나 소스, 부재료 등이 없어도 재료 본연의 깔끔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격적인 봄나들이 철이 시작되면 휴대하기 편하고 영양가 높은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디저트 카페 설빙, 태국시장 진출

한국식 디저트 카페 설빙이 태국 시장에 진출했다.

설빙은 태국 현지 기업 이띠아(International world Ettia Thai)와 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설빙 본사에서 진행된 MOU에는 정선희 설빙 대표(사진 왼쪽)와 이띠아의 공동 투자자 박상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빙은 올해 6월까지 태국내 직영점 2개 오픈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50개까지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 '좋은 엄마' 1기 발대식 개최

CJ제일제당은 피부 가려움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이들 가정을 응원하기 위한 '좋은 엄마의 시작'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CJ제일제당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4일 중구 쌍림동 CJ제일제당 본사에서 아이의 피부 가려움을 개선하고 싶은 133명의 엄마들로 구성된 '좋은 엄마' 1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포카리스웨트, 7년째 서울국제마라톤 공식음료

동아오츠카(대표 이원희)는 이온음료 포카리스웨트가 15일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5 서울국제마라톤'의 공식음료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동아오츠카는 올해로 7년째 서울국제마라톤의 공식협찬사로 참여하고 있다. 공식음료 포카리스웨트 지원을 비롯해 매년 참가자를 위한 새로운 장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러닝코스 5km 구간마다 선수들을 위한 음료 공급대를 설치하고, 땀으로 배출된 수분을 채워줄 포카리스웨트와 생수를 지원했다.

또 경기 후 우리했을 근육을 이완시켜줄 반신욕과 음파마사지 등을 받을 수 있는 '릴렉스존'을 설치하고 이용시간 동안 퀴즈 이벤트를 통해 경품도 추첨한다.

CJ푸드빌, 상생아카데미 9기 교육생 모집

CJ푸드빌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설립한 외식창업 전문교육기관 'CJ푸드빌상생아카데미(이하 상생아카데미)'의 9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정원은 은퇴나 전직을 앞둔 중장년층 대상 48명이다.

최종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나스타(브런치) 전문점 창업 ▲베이커리(디저트) 전문점 창업 ▲서피(음료) 전문점 창업(2개 반) 등 3개 과정으로 나눠 3주간(240시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태국관광청 제공

태국서 열리는 세계적 물 축제

송끄란 페스티벌' 내달 12일부터

태국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송끄란 페스티벌'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다음 달 12일부터 20일까지 태국 전역에서 펼쳐지는 송끄란 페스티벌은 태국 전통 명절 중 하나로 세계적인 물 축제다.

축제는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불상에 존경을 표하기 위해 물을 끼얹는 것에서 기원됐다. 이에 사람들은 축제기간 동안 아침 일찍 절을 찾아 시주하고 달마의 말씀을 들은 후 불상에 정화수를 뿌린다. 또 아이들은 어른들의 손에 정화수를 뿌리고 이에 대한 답으로 어른들은 건강과 행복, 그리고 번영을 기원해 준다.

아울러 태국 곳곳에서는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물싸움이 이어진다. 태국인과 여행객 모두 길거리로 나와 신나는 물놀이는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물총과 양동이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면 재미를 더할 수 있다. 문의: 태국정부관광청 (02)779-5416~8 /[illegible]기자

"예체능계 국가장학금 신설"

교육부·한국장학재단 간담회… 내달 시행계획 공고

예체능계열 국가우수장학금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의 주최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예체능계 국가우수장학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교육부 등 주무부처와 유관기관을 비롯해 예체능계열 전공별 대학교수, 학생, 언론계, 법조계 등 30명의 패널이 참여해 2시간에 걸쳐 장학금 지원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예체능계열의 우수인재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선정대상범위, 평가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예체능계열의 특성상 실기능력이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각 전공 특징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열별 심층에 따른 현실감 있는 의견들이 나왔다.

또 이날 모인 관계자들은 현재 140명 대상, 11억2000만원이라는 장학금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예체능계역 국가우수장학금은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4월 중 시행 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역에서 심정지환자 살린 시민에 감사패 지난 13일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사장 이정원(가 지난달 3호선 홍제역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구호에 도움을 준 이은[illegible](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 사진 오른쪽) 씨에게 감사패와 포상금을 전달했다. 당시 이씨는 열차 내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시 전기 충격을 통해 심장박동을 회복시키는 기기인 자동제세동기(AED) 사용을 조언하는 등 도움을 베풀고 현장을 지켰다. /서울메트로 제공

케이토탈패션디자인 전문학원 구두·가방 명장과 함께 실무교육

"브랜드 기획·창업 과정도 운영"…4월 6일 개강

이론 중심이 아닌 제작 실무에 특화된 수업으로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케이토탈패션디자인 전문학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케이토탈패션디자인전문학원에서는 구두·가방 명장들과 함께 하는 현장실습 위주의 전문교육으로 3월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구두·가방 등 패션 액세서리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구두디자인, 가방디자인, 토탈패션 창업 등 크게 세 가지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각 과정마다 기초적인 디자인 이론과 실습 외에도 브랜드 기획과 창업 과정을 심화과정으로 운영해 수강생들이 자신만의 브랜드를 설립할 수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있다.

또 1년 간 최소 2개 이상의 구두·가방 업체들과 산학프로젝트를 진행해 실무 프로세스를 수강생이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수진은 디엔샵 공효진 슈즈 프로젝트 담당 제남수교수, 패션디자이너 이상봉 컬렉션 슈즈 제작을 맡고 있는 한용준 장인, 가방 브랜드 루이 제작을 맡았던 박봉수 장인, 서울컬러디자인연구소 이재란 대표, 전 금강제화 기술이사 송동렬 등 각 분야에서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실무진 위주로 구성됐다.

새 학기는 4월 6일 개강하며 자세한 교육 문의와 상담은 케이토탈패션디자인 전문학원 홈페이지(www.tadi.co.kr) 또는 전화(02-465-[illegible]5)로 통해 가능하다. /김수정기자

강강술래, 희망꽃씨 나눔 이벤트

이달말까지 가정간편식·영양간식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봄을 알리는 꽃씨를 전달해주는 '희망꽃씨 나눔 이벤트'를 벌인다.

전 매장에서는 이달 말까지 방문고객 전원에게 꽃씨 7만봉을 소진시까지 무료로 증정한다. 온라인쇼핑몰(sullalmall.com)에서도 가공상품 주문고객에게 꽃씨를 함께 보내준다.

쇼핑몰(sulla 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 전 매장을 통해 가정간편식과 영양간식 할인행사도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육개장선물세트(500㎖ 7팩, 14인분)는 2만9000원에, 갈비탕선물세트(500㎖ 7팩, 14인분)는 3만95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하며 구매 시 한우사골곰탕(350㎖ 2팩)을 덤으로 준다.

이 외에 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박스(10봉)를 40% 할인된 3만6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정찰 한우떡갈비세트(360g×3박스)도 5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이대목동병원, 국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

이대목동병원 수면센터(센터장 이향운)가 오는 27일 병원 강의실 홀에서 개소 3주년을 기념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김선종 배정호 이화여대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는 심포지엄 1부에서는 ▲수면무호흡증의 신경영상 연구(홍승봉 성균관대 교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수술적 치료(김현준 아주대 교수) ▲수면장애에서의 대뇌피질가소성과 뇌자극술 치료 현황(발터 파울루스 괴팅겐대 교수) 등의 강연이 준비된다.

또 염윤경 이화여대 교수와 홍승철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는 2부에서는 ▲한국인 기면증 환자의 임상과 유전학적 특징(홍승철 가톨릭대 교수) ▲수간졸리움증과 기면증(모리스 오헤이욘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 ▲각성 관련 뇌조절 기전에 대한 기초연구와 임상적용(리치 E. 브라운 하버드대 교수) ▲수면센터 발전 방향(이향운 이화여대 교수)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수면센터는 지난 2012년 개원 이래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등 4개과에서 통합 진료를 시행하며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illegible]

목·허리통증 이젠 수술 없이 간단히 10분 정도면 고친다!

#평소에 허리가 좋지 않았던 회사원 박모(37)씨는 요통이 있을 때마다 물리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으며 통증을 참아왔다. 치료나 약 복용 후 증상이 차차 사라졌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갑자기 요통이 심해졌다. 매일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증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악화됐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커졌다.

이에 집 근처 병원을 찾은 박씨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말기를 진단받았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부작용 등 수술이 두려운 박씨는 수술을 계속 미뤘다. 이후 박씨는 수소문한 끝에 가수 장미화 등 유명 연예인들이 수술 없이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고 완치됐다는 강남초이스병원에 내원했다. 그는 이곳에서 국소마취 후 병변 부위에 직경이 작은 미세 특수 내시경으로 10분간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받고 증상이 호전돼 시술 당일 퇴원할 수 있었다.

◆디스크 30% 이상 비수술로 호전

박씨처럼 허리·목디스크 환자가 부쩍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기기 사용이 늘면서 20~30대 젊은층에서도 디스크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2013년 디스크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 인원은 2009년 224만명에서 2013년 271만명으로 늘었다. 5년간 약 20% 증가한 셈이다.

문제는 질환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허리나 목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단순한 통증이 심해지면서 어깨와 팔, 손과 다리에 저린감이 나타나고 두통까지 동반될 수도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전신 마비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디스크 치료는 질환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받아야 한다.

또 질환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조성태 강남초이스병원 원장은 "디스크 초기에는 간단한 약물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또 조기 디스크 환자의 90%가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늘어난 인대를 회복시키고

고주파 특수내시경을 받고 완치된 가수 장미화(오른쪽)와 조성태 강남초이스병원 원장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주변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과 운동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만약 증세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비수술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 고주파열을 이용한 고주파 열치료술(수핵감압술)과 고주파 특수내시경 치료술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국소마취 후 사용하는 이 방법들은 별도의 입원이 필요없고 시술시간이 20분 이내로 짧아 바쁜 직장인들에게 안성맞춤이다. 게다가 수술 부작용도 적고 회복도 빨라 퇴원도 가능하다.

수핵감압술은 가는 관 모양의 카테터를 병변에 위치시키고 고주파열을 이용해 치료하는 방식이다. 병변에 고주파 열에너지를 쏘면 튀어나온 디스크 크기가 작아져 신경 압박이 줄어든다. 아울러 특수내시경 치료술은 치료 범위가 넓은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디스크에 동반된 협착증도 치료할 수 있다. 지름 2~3㎜의 특수내시경을 병변에 집어넣어 밖으로 밀려나온 디스크를 제자리로 밀어넣는 방법이다. 디스크가 터졌을 때는 약물 투입도 가능해 신경 부종이 줄고 증상 호전도 빠르다.

조 원장은 "특수내시경 치료술은 시술 중 통증이 거의 없고 흉터가 남지 않는다. 퇴원과 일상생활이 곧바로 가능해 환자 만족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술은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 허리디스크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황재용 기자 hsoug09@metroseoul.co.kr

직선미 살린 소형 SUV 'KX3' 눈에 띄네

중국 시장 선점 후 국내 출시‥ 티볼리·투산 등 돌풍 잠재울지 주목

기아자동차가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KX3'가 지난해 말부터 불붙은 소형 SUV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받고 있다.

쌍용자동차 티볼리가 출시 한달 남짓에 1만대를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고, 지난해 르노삼성과 한국GM의 'QM3'와 '쉐보레 트랙스'를 각각 1만8000대, 1만대씩 팔아 바람몰이가 시작됐다. 작년 말에는 푸조가 가격대비 연비가 높은 '2008'를 출시해 주목받더니 최근에는 현대차 '올 뉴 투싼'도 다운사이징한 1.7L 소형 디젤엔진을 장착한 모델로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기에 기아차 KX3까지 한국시장에 출시되면 판매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KX3 파워트레인(동력장치)은 129마력 1.6L(리터)급, 160마력 2.0L급 가솔린 엔진과 함께 161마력 1.6L급 터보 GDI 엔진과 7단 DCT(더블클러치변속기)를 탑재된 3가지 모델로 구성됐으며 디젤 모델은 제외됐다. 차급은 앞서 출시된 티볼리 등과 비슷한 소형모델이다. KX3의 외장 디자인은 직선 위주의

12일 중국 시안 ... 기아차 KX3 ... 신차발표회 ... 관계자들이 ... 모습 ... 왼쪽부터 둥펑위에다기아 소남영 총경리, 둥펑위에다기아 ... 부동사장, 중국 ... 시장, 둥펑위에다기아 ... 동사장. /현대차 제공

디자인에 SUV의 역동성을 살리며 볼륨감을 강조하는 형태로 ▲HID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등 ▲LED 리어콤비램프 ▲파노라마 썬루프 ▲투톤 비디칼라 등을 통해 젊은 고객들의 입맛에 맞췄다.

특히 6에어백, ESC(주행안정성제어장치), HAC(경사로밀림방지), DBC(경사로저속주행장치) 등 안전 사양을 탑재하고, C-NCAP(중국 신차평가) 충돌 테스트에서 별 5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자는 오는 6월 티볼리 디젤 모델 출시와 함께 가솔린 4륜구동 모델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티볼리는 저렴한 가격(자동변속기 기준 1795만원부터)대비 높은 옵션 등의 성능을 바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디젤이 출시되면 인기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티볼리의 최저가 모델은 1635만원부터이고, 투싼은 2250만원이다(수동변속기 기준).

티볼리는 지난 1월 출시 이후 약 한달 남짓에 누적계약 1만대를 돌파했다. 동급 차종인 트랙스의 지난해 판매량이 1만368대인 점을 감안하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수치다.

쌍용자 관계자는 "평일 3시간씩 야근과 주말 특근으로 물량 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폭발적인 반응에 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신형 투싼을 내세워 티볼리 돌풍을 잠재우겠다는 전략으로 출시도 앞당겼다.

현대차의 투싼은 엄밀히 말하면 티볼리보다 차체가 훨씬 크지만 티볼리가 소비자에게 먹히는 것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1.7L 모델에는 유로6 디젤엔진과 7단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DCT),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엔진을 꺼주는 ISG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됐다. 또 6개의 에어백을 적용했다. 티볼리의 디젤 모델과 직접적인 경쟁이 예상된다. 1.7L 모델의 고급 트림인 '모던'에는 버튼 시동 스마트키와 LED 방향지시등, 풀오토 에어컨 등이 추가되며 45.72㎝(18인치) 휠, 파노라마 선루프, 20.32㎝(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은 옵션으로 분류됐다.

쉐보레 트랙스는 안정성을 강조하며 조용히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1.4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최고 140마력을 내고, 차의 높이가 1670㎜로 경쟁차들보다 높다. 타사 모델들보다 트렁크 높이가 높아 수납공간이 넓고 차체가 높은 SUV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 시야확보가 좋다. 가격도 1953만~2302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올 상반기 중으로 트랙스 디젤도 출시할 예정이다.

르노삼성자의 QM3는 동급최강의 연비로 무기로 내세운다. 디젤 엔진을 달고 L당 연비가 18.5㎞나 된다. 모기업 프랑스 르노가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를 수입해 판매하기 때문에 마크만 바꾸면 수입차 같은 느낌도 매력이다. 값도 경쟁력을 갖췄다. 2280만~2570만원으로 가격대비 연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수입차인 푸조 '2008'은 2000만원대 수입 SUV라는 점 때문에 출시 전부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L당 연비가 17.4㎞로 상위권에 속한다. 작년 10월 출시 직후 예약 고객이 1000명 몰릴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프랑스 자동차만의 올 흐르는 듯 수려한 디자인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최고급 모델 가격을 3150만원에서 3060만원으로 낮추면서 투싼 상위트림 모델을 택하려는 소비자와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KX3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중국 소형 SUV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에도 이른 시간내 출시해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용기자 lsy@metroseoul.co.kr

티볼리

벤츠, 1만6504대 제작결함 리콜

E-클래스·CLS-클래스 등 13차종

벤츠 자동차 1만6500여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리콜대상 차종은 2012년 7월 2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13차종 총 1만6504대다.

이번 결함은 엔진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고무덮개 부품이 보닛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엔진룸 안쪽으로 떨어졌을 때 엔진 배기 계통에 달라붙을 경우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했을 경우,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벤츠코리아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김학철기자 kimc0604@

현대차 투싼, 국산 SUV 최초 누적판매 400만대 돌파

2004년 출시된 이후 11년 만에 현대자동차의 투싼이 누적 판매 400만대를 고지를 코앞에 두고 있다. 국내 완성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는 처음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투싼은 지난달까지 유럽과 중국 등지에서 판매 호조에 힘입어 누적 판매량 395만5152대를 기록했다.

투싼이 월평균 4만9000대 이상 팔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중 400만대 고지 돌파가 확실시된다. 이는 국내 완성차 가운데 최단 기간에 달성하는 실적이다.

경쟁차인 도요타의 라브4는 1994년 출시된 이후 18년 만인 2013년에야 400만대를 넘겼다.

반면 투싼은 이보다 7년 앞선 11년 만에 400만대 판매를 달성하는 것이다.

투싼은 2008년 100만대 판매를 돌파하기까지 5년이 걸렸다. 이후 2세대 모델인 투싼ix 출시 이후 3년 만인 2011년에 200만대, 다시 2년 만인 2013년에는 300만대를 넘어섰다.

현대차는 6년 만에 3세대 모델 올 뉴 투싼(사진)을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세계 SUV 시장 공략에 나선다.

투싼은 지난해 유럽시장에서 9만4166대가 판매돼 소형차 i20(8만2632대)를 제치고 현대차 전체 모델 가운데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이달 초 열린 제네바 모터쇼에서 올 뉴 투싼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등 유럽시장 판매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내시장에서도 사전계약 대수가 나흘 만에 4000대를 넘어서며 초반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정소라기자 ssora@

'꿈의 무대'서 5만개 팔찌 물결

그룹 샤이니가 지난 14일 오후 일본 도쿄돔에서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일본 데뷔 4년 만에 '꿈의 무대'로 불리는 도쿄돔에 오른 이들은 4시간 가까이 공연을 펼치며 5만여 관객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했다. 첫날 공연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인 이날 오후 9시 무대 뒤편에서 샤이니와 만났다.

샤이니 일본 데뷔 4년 만에 도쿄돔 단독 콘서트

2010년부터 日 투어 … 누적관객 77만명 돌파
칼군무·깨알같은 솔로무대 · 마법의 240분
"많은 감동받아 …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 **도쿄돔에 오르기까지**

이번 공연은 지난해 9월 저바른 시작으로 노쿄, 오사카, 고베 등 일본 20여개 도시에서 열린 투어의 마지막 무대이자 첫 도쿄돔 공연이었다. 샤이니는 지난 2010년부터 아시아 투어와 일본 아레나 투어로 현지 팬들과 꾸준히 만나왔다. 일본 투어 누적관객수는 무려 77만명에 이른다.

"오늘 공연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하나 전부 기억에 남아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민호)

"홀 투어에서 시작해 아레나 투어를 거쳐 도쿄돔까지 왔어요. 오늘은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팬들이 주신 성원과 사랑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키)

"콘서트는 항상 관객과 함께해야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팬들에게 정말 많은 에너지를 받았고 그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했어요. 무대가 너무 넓어 초반에 힘을 많이 썼더니 중간에 힘들더라고요(웃음)." (종현)

관객들은 노래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팔찌를 차고 무대 위의 샤이니와 함께 호흡했다. 반실거리는 5만개의 초록색 불빛이 샤이니를 응원했다. 키는 '파이어(Fire)' 무대에서 눈물을 보였고 종현도 공연 막바지에 눈물을 펑펑 쏟았다.

"팬들이 다 같이 부르는 노래에 눈물이 안 날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웃음) 마지막이 아니라 '파이어' 무대에서 눈물이 터질 줄은 몰랐어요." (키)

"제가 원래 눈물이 많아요(웃음). 첫 곡 '에브리바디(Everybody)'로 무대에 선 순간 사람에 조명 빛인데 가까스로 눈물을 참았죠." (종현)

태민은 공연 중간 다리가 불편한 듯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여 팬들의 걱정을 샀다. 다행히 부상은 아니었다.

"너무 긴장했는지 다리에 쥐가 났어요(웃음). 도쿄돔 공연 자체에 설레 근육이 경직됐고 마음도 앞서다 보니 컨디션 조절을 잘 못했어요. 멤버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미안해요." (태민)

◆ **칼군무 부터 '깨알' 솔로 무대까지**

이날 공연은 샤이니가 2011년 일본 데뷔 후 현재까지 걸어온 길을 총망라한 자리였다. 일본 현지 발표곡과 국내 히트곡은 물론 각 멤버들의 개성이 돋보이는 솔로무대가 이어졌다.

특히 키는 '본 투 샤인(Born to shine)'을 처음 공개해 상체를 노출한 파격적인 의상과 안무로 5만 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제까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무대를 위해 잘 묵지 않았던 노출을 해보고 싶더라고요(웃음). 식단조절도 했어요."

민호는 깜찍한 유치원생 복장으로 수십명의 어린이와 함께 등장했다. 평소 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와 180도 다른 귀엽고 발랄한 무대였다.

"다섯 명이 다 멋있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 콘셉트를 바꿔봤어요. 리허설 땐 괜찮이 창피했는데 막상 5만 명 앞에 서니 자신감이 생기던걸요?" (민호)

샤이니는 거대한 도쿄돔을 다양한 무대 연출로 활용했다. 이동식 무대를 타고 자리를 옮겨 2, 3층 관객에 잘 보이는 돔 한가운데 마련된 높은 리프트 무대에 올라갔다. 샤이니의 격한 안무에 리프트가 흔들거리는 순간도 있었다. 종현은 "리허설 할 때 여러 번 점검한다"며 "안전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말했다.

"리허설 때 저랑 온유는 괜찮았는데 키는 일어서질 못하더라고요(웃음). 막상 공연 시작하고 2, 3층 관객들을 정면으로 보니까 괜찮아졌어요." (민호)

꿈의 무대였던 도쿄돔에 오른 이들의 목표는 이제 무엇일까.

"공연장만 두고 보면 스타디움이겠죠. 하지만 관객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종현)

"규모에 상관없이 공연 자체가 즐거워서 더 하고 싶어요. 기왕 시작했으니 돔 투어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올해 안에 한국에서 앨범 무조건 내야죠!" (온유)

/도쿄=김지민기자 kimjimin@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star bag

드라마 '구여친 클럽' 출연

신인 배우 류화영이 tvN 새 금토드라마 '구여친 클럽'에 출연한다. 그가 분할 라라는 섹시한 여배우이자 인기 웹툰 작가 방명수(변요한)의 옛 여자친구다. 청순한 얼굴과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지닌 인물이다. 여우 같은 매력으로 캐릭터의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슈퍼대디 열' 후속 작으로 5월 초 첫 방송된다.

교복 패션으로 시선 잡아

배우 신세경이 교복패션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신세경은 SBS 새 수목극 '냄새를 보는 소녀'에서 냄새를 눈으로 보는 소녀 오초림 역을 맡았다. 관계자는 "시청자도 변치 않는 동안 외모에 많은 관심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드 지킬, 나' 후속작으로 내달 1일 첫 방송.

'앨리스' 전주영화제 본선

배우 이정현 주연의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가 다음달 30일 개막하는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경쟁부문인 '한국경쟁' 본선에 진출했다. 블랙 코미디 장르의 영화로 이정현은 주인공 수남 역을 맡았다. 영화는 오는 5월 정식 개봉 예정이다.

여심 설레게 하는 티저 공개

tvN 새 월화드라마 '식샤를 합시다2'가 주연 배우 권율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권율은 운동을 하는 듯한 가벼운 차림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맛깔나는 표정 연기를 선보였다. 권율, 윤두준, 서현진 등이 출연하는 '식샤를 합시다2'는 다음달 6일 방송된다.

다시 만나는 찰리 채플린

'모던 타임즈' 재개봉… 전작 기획전도 마련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그가 연기했던 캐릭터 '리틀 트램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중절모에 콧수염, 헐렁한 바지와 커다란 구두. 그리고 지팡이에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까지 찰리 채플린은 할리우드 고전영화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배우로 남아 있다.

그런 찰리 채플린의 업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영화 수입배급사 엣나인필름은 찰리 채플린의 대표 캐릭터인 리틀 트램프의 탄생 101주년을 맞이해 그의 전작을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극장가에 선보인다.

그 포문을 여는 작품은 오는 19일 개봉하는 '모던 타임즈'(1936)다. 하루 종일 공장에서 나사못을 조이다 모든 것을 조여 버리는 강박관념을 갖게 된 찰리와 고아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슬랩스틱 코미디는 물론 산업사회의 부조리와 기계화된 인간에 대한 풍자를 담은 작품으로 회자되고 있는 작품이다.

기획전도 마련됐다. 오는 26일부터는 '모던 타임즈'를 포함해 '키드'(1921), '파리의 여인'(1923), '시티라이트'(1931) 등 찰리 채플린의 무성영화 5편을 만날 수 있는 '찰리 채플린 기획전 파트1'을 연다.

다음달 16일에는 히틀러와 나치즘을 풍자한 '위대한 독재자'(1940)가 개봉한다. 이어 '황금광 시대' '살인광 시대' '라임라이트' '뉴욕의 왕'이 '찰리 채플린 기획전 파트2'로 [illegible] 관객과 만난다. 또한 5월에는 KT&G 상상마당 시네마의 '단편 상상극장'을 통해 찰리 채플린의 단편 7편을 상영할 계획이다.

엣나인필름 측은 "최근 뒤숭숭한 시국에서 찰리 채플린의 웃음이 필요하다 생각해 재개봉과 기획전을 마련하게 됐다"며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통해 더 좋아진 화질과 새로운 감수를 거친 자막으로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한국영화 부진 탈출 언제쯤?

2월 기대이하 성적 이어 3월 전망도 어두워 유명감독 신작 등으로 침체 타개 '기대'

'국제시장'의 1000만 영화 등극으로 활기를 띠던 한국영화가 또다시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달 설 연휴를 겨냥해 개봉한 '쎄시봉'과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이하 '조선명탐정2')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한데 이어 극장가 비수기인 3월에도 큰 화제작이 없어 한국영화의 부진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한국영화가 침체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은 극장을 찾는 관객의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체 영화 관객수는 1664만5599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1855만8008명)에 비해 약 219만 명이 줄어든 수치다.

설 연휴 개봉한 한국영화 대작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흥행 성적을 기록한 것도 침체의 원인이다. '쎄시봉'은 171만 관객을 모으는데 그쳤다. '조선명탐정2'도 14일까지 누적 관객수 384만여 명으로 전작의 기록(478만)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영화 점유율은 지난 1월 62.4%에서 2월 48.3%로 대폭 하락했다.

3월에 접어들어서도 한국영화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하다. 지난 5일 개봉한 '순수의 시대'와 '헬머니'는 각각 19금 지정 사극과 코미디를 내세워 흥행에 도전했으나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고 있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이하 '킹스맨')의 기세를 꺾지는 못했다. 14일까지의 누적 관객수는 각각 43만6295명과 38만5157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체면을 살린 것은 지난 12일 개봉한 '살인의뢰'다.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른 '살인의뢰'는 14일까지 누적 관객수 36만2812명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킹스맨'과 '채피' '위플래쉬'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다. 올해 최고의 화제작 중 하나인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개봉하는 4월 말까지 부진이 계속된다면 한국영화는 더더욱 깊은 침체기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것은 신선하고 젊은 감각을 내세운 영화들이 대거 개봉한다는 사실이다. 오는 25일 개봉하는 이병헌 감독의 '스물'과 다음 달 개봉하는 한준희 감독의 '차이나타운'은 충무로의 각광 받는 30대 젊은 감독들의 작품이다. 지난 12일 개봉한 '소셜포비아'도 박스오피스 5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점도 희망을 갖게 만든다. 임권택 감독의 '화장', 강제규 감독의 '장수상회' 등 유명 감독의 신작들도 개봉을 준비 중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장시간 출근족'과 만남

◆ MBC '다큐스페셜-두 시간째 출근 중' 오후 11시15분

장시간 출근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도 소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출근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출근에 시달리는 사람은 만성피로와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가족과의 시간, 개인 여가 등도 줄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다큐멘터리는 MBC 라디오 '굿모닝 FM 전현무입니다'와 함께 마련됐다.

◆ KBS1 안순이의 토크드라마 '그대가 꽃' 오후 7시30분

코미디언 구봉서가 한국 전쟁 때 두 번 죽다 살아난 일화를 공개한다. 그는 전쟁 발발 후 문화예술인들이 대거 납북되던 상황 속에서 동료 가수, 코미디언들은 탈출시켰지만 정작 본인은 도망가지 못했다.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40분

JTBC 새 금토드라마 '순정에 반하다'에 출연하는 배우 정경호와 윤현민이 출연한다. '든든한 간식' 코너에서는 원년 멤버 김풍과 인턴 셰프 이원일이 정경호가 원하는 장에 좋은 요리로 대결을 펼친다.

◆ KBS2 드라마 '블러드' 오후 10시

지태(김유석)와 재상(안재현)은 21A 병동의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재상은 감기 몸살에 걸린 리타(구혜선)의 병문안을 가고 리타는 재상이 과거 제주도에서 자신을 구해준 소년임을 알게 된다.

◆ MBC 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 오후 10시

왕욱(임주환)은 신율(오연서)을 살리기 위해 일부러 거짓 증언을 해 '청해상단'을 위기에 빠뜨린다. 여원(이하늬)의 이야기를 들은 왕소(장혁)는 지난 세월 황실에서 벌어졌던 비극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 SBS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오후 10시

지난날의 직진은 정호(유준상)와 연희(유호정)에게 모욕감을 남겼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날 리 없는 정호는 곧 마음을 진정시키고 야심적이고 냉철하게 양 비서(길해연)에게 플랜D를 지시한다.

◆ tvN 드라마 '호구의 사랑' 오후 11시

노도희(유이)가 오랜 시간 손길이 닿지 않은 묘지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묘지의 주인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부모님인지 또 그가 왜 묘지 앞에서 울고 있는지 시청자의 궁금증을 자극한다.

◆ KBS2 '안녕하세요' 오후 11시10분

가수 강남이 다섯을 인증한다. 녹화 현장에서 "'안녕하세요' 이후 많이 큰 것 같다"며 "은행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고 인기를 얻은 후 가장 달라진 점을 솔직히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오후 11시

가수 싸이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출연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한 이유를 공개한다. 또한 여지까지 공개한 적 없는 아내 벨과의 러브스토리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예정이다.

감성힐링뮤지컬
하늘아
엄마 숨 속엔
늘 니가 있어…
2014. 10. 31 ~ 2015. 04. 17 열린 극장
문의 | 1644 8609

쳤다하면 홈런… 역시 박병호

시범경기 3호 홈런 기록… 타율 0.385 이례적 페이스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홈런왕' 박병호(29)가 쾌조의 컨디션으로 시범경기 3호 홈런을 기록했다.

박병호는 15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시범경기에서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장했다.

2회초 선두 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박병호는 롯데의 새 외국인 투수 조쉬 린드블럼을 상대로 3볼-1스트라이크의 유리한 카운트를 잡았다. 4구째에 바깥쪽으로 낮게 깔린 시속 145km짜리 빠른 공이 들어오자 박병호는 곧장 방망이를 돌렸다.

제구가 잘된 데다 속도도 빨라서 대처하기 쉽지 않은 공이었다. 타구는 우측으로 뻗어가 비거리 120m짜리 솔로 홈런으로 이어졌다. 박병호의 힘과 배트 컨트롤이 만들어 낸 결과였다.

15일 오후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2015 프로야구 시범경기 롯데와 넥센 경기. 2회 말 무사 때 넥센 박병호가 홈런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로써 박병호는 지난 8일 케이티 위즈전에서의 만루홈런과 2점 홈런에 이어 시범경기 3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는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갔다. 파울이 될 수 있었던 공을 좋은 타구로 연결한 것에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범경기에서 박병호가 보여주고 있는 페이스는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빠른 편이다. 지금까지 6경기에서 13타수 5안타로 타율 0.385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타점도 10개나 수확했다.

박병호는 LG트윈스 소속이던 2009년 이후 시범경기에서 타율 0.300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다. 시범경기 홈런도 2013년에 4개를 친 걸 제외하면 다른 해에는 2개를 넘기지 못했다.

물론 시범경기 성적이 정규시즌 기록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2014년 정규시즌에서 52홈런을 터뜨린 그는 정작 시범경기에서는 타율 0.176에 홈런은 하나도 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해 시범경기에서는 유난히 돋보이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정규시즌 성적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이날 경기는 박병호의 결승 홈런에 힘입어 넥센이 2-1로 승리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7개월 만에 침묵 깬 구자철

마인츠,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2-0 승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활약 중인 구자철(사진 가운데)이 7개월 동안 이어진 긴 침묵을 마침내 깼다.

구자철은 15일(한국시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의 SGL아레나에서 열린 2014-2015 분데스리가 25라운드 아우크스부르크와의 원정경기에서 1-0으로 앞선 후반 44분 쐐기골을 넣으며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구자철의 골은 지난해 8월 25일 파더보른전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리그 2호 골이자 시즌을 통틀어서는 4호 골이다.

구자철은 지난해 8월 8일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3차 예선 2차전, 같은 달 16일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라운드 뵘니처(3부리그)에서도 골을 넣었다.

최근 팀 내 입지가 불안했던 구자철은 이날도 벤치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전반 21분 부상당한 요다스 호프만과 교체 투입돼 약 70분간 경기를 소화하며 팀의 승리에 힘을 보탰다.

마인츠는 전반 32분 파블로 데 블라시스가 골 지역 왼쪽에서 내준 패스를 오카자키 신지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결승골을 뽑았다.

구자철과 박주호가 골을 넣을 뻔한 순간도 있었다. 구자철은 전반 41분 날카로운 왼발 슈팅을 골문을 두드렸으나 상대 수문장 선방에 가로막혔다. 1분 뒤에는 박주호가 문전 왼쪽에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비수가 걷어내 골로 연결되지 못했다.

1-0으로 경기가 끝날 것 같던 후반 44분 구자철은 동료 다니엘 브로신스키의 슛이 골키퍼 선방에 막혀 흘러나온 볼을 수비수 한 명을 따돌리고 왼발 슈팅으로 성공시키며 골을 넣었다. /장병호기자

LG·오리온스 "4강 티켓 가리자"

이번 시즌 5승5패… 예측불허 명승부 예고

프로농구 창원 LG와 고양 오리온스가 4강으로 가는 마지막 티켓을 놓고 16일 6강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시즌 11번째 맞대결이다.

두 팀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6번 싸워 3승씩을 나눠 가졌다. 플레이오프에서도 4차전까지 2승 2패로 팽팽히 맞서며 이번 시즌 5승5패로 호각을 이루고 있다.

이에 16일 오후 7시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플레이오프 5차전은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할 것 없는 예측 불허의 명승부가 예상된다.

지난 10일 오후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LG와 오리온스 경기. LG 문태종(오른쪽)과 오리온스 허일영이 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긴 팀은 하루만 쉬고 18일부터 정규리그 1위 울산 모비스와 4강전을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6강에서 2승3패로 허무하게 패하는 것보다는 이기는 편이 훨씬 낫다.

정규리그 4위를 차지한 LG가 극복해야 할 것은 주포인 문태종(40)의 부진이다.

문태종은 정규리그에서 평균 12.1점을 넣었고 3점슛 성공률 37.2%로 5위에 올랐던 선수다. 그러나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4차전까지 치르는 동안 평균 6.8점에 3점슛 성공률은 20%에 그쳤다. 지난 14일 열린 4차전에서도 2점슛 6개 가운데 1개만 넣었고 3점슛 4개는 모두 빗나가는 등 체력 저하가 눈에 띈다.

오리온스는 라이온스가 분발하기를 바란다. 라이온스는 정규리그 평균 19.7점을 넣은 선수지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8점에 묶였다. 2차전에서 2득점에 그쳤고 3차전에서도 후반 무득점 등 6점 밖에 넣지 못했다.

또 다른 외국인 선수인 트로이 길렌워터는 4경기 평균 24.5점으로 제 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라이온스의 부진으로 외국인 선수 원투펀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팀은 2001-2002시즌과 2003-2004시즌 등 지금까지 플레이오프에서 두 차례 만나 모두 최종전까지 치른 바 있다. 2001-2002시즌에는 오리온스가 3승2패, 2003-2004시즌에는 LG가 3승1패로 시리즈 승자가 됐다. /장병호기자

볼트 시즌 첫 400m 우승… "컨디션 올라오고 있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29·자메이카·사진)가 올 시즌 첫 개인 종목 경기에서 우승하며 새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볼트는 15일(한국시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포스터 클래식 대회 남자 400m에 출전해 46초37의 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이날 대회는 볼트가 올 시즌 개인 종목 경기에 처음 출전한 것이다. 우승도 처음이다.

앞서 볼트는 지난 1일 남자 400m 계주 경기로 올 시즌 첫 실전에 나섰다. 그러나 2위에 오르는데 그쳤다.

경기를 마친 뒤 볼트는 "(몸 상태가) 올라오고 있다"며 "훈련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볼트는 부상으로 인해 지난 시즌 거의 모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올 시즌 베이징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 통산 세 번째 남자 단거리(100m·200m·400m 계주) 3관왕 등극을 노리고 있다.

볼트는 "지난 몇 년 동안 경기 출전이 적었다. 더 예리한 레이스를 펼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기에 출전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선수권대회 전 자주 실전에 나설 뜻을 밝혔다. /장병호기자

폐경 후 나타난 월경 '자궁근종' 의심

폐경 후 나타나는 월경이 생리가 아닌 자궁근종에 의한 하혈일 수 있어 중년 여성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통 여성이 나이가 들면 난소가 노화돼 배란과 여성 호르몬 분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폐경이 찾아온다. 1년 정도 생리가 없을 때 폐경이라고 진단되며 폐경은 40대 중·후반부터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진 자궁근종 역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크기가 작아진다. 하지만 최근에는 호르몬 이상이나 후유증 등으로 폐경 후 자궁근종이 커지거나 악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특히 폐경기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안면홍조와 불안감 등 폐경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치료를 장기간 받을 경우 개인에 따라 유방암이나 자궁근종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폐경 이후 부정출혈이나 통증이 이어진다면 자궁근종으로 인한 하혈일 수 있어 즉각 산부인과를 찾아야 한다. 또 이럴 경우 대부분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을 권하기만 자궁을 보존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하이푸 시술이나 복강경 수술 등으로 자궁 적출 없이 자궁근종을 제거할 수 있다.

김민우 청담산부인과의과 산부인과 전문의는 "많은 여성들이 자궁근종으로 인한 자궁 적출을 걱정하지만 자궁을 보존하면서 종양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폐경 후 하혈이 생긴다면 곧바로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제약산업, 나가야 산다

지난해 해외 직접투자 1억5488만 달러 - 1년새 3배

지난해 국내 제약산업의 해외 직접투자 규모가 전년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4년 국내 제약산업 해외 직접투자(FDI)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산업의 해외 직접투자 신고금액은 2013년(5130만 달러)보다 201.9% 늘어난 1억5488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이 해외에서 직접투자를 시작한 1988년 이후 최고치로 최근 4년간 해외 직접투자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 지역별로는 북미지역 직접투자가 6338만 달러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 또 아시아(40.1%)와 유럽(4.1%), 중남미(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10년과 비교하면 북미지역에 대한 투자가 4.7배 늘었고 같은 기간 아시아지역 투자는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투자 국가는 2010년 12개국에서 지난해 19개국으로 다변화됐다. 직접투자의 목적으로는 '선진기술 도입(41.4%)'과 '현지시장 진출(40.8%)'이 가장 많았으며 '제3국 진출(16.6%)'과 '수출 촉진(1.3%)' 등을 위한 경우도 있었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세계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제약산업의 해외 직접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좁은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인트벤처 투자 등을 활용한 해외 직접투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봄타는 남성, 갱년기증후군?

신체·정신적 이상 갑자기 찾아오면 의심해야

봄이 오면서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쉽게 짜증을 내는 등 봄을 타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날씨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평소와 달리 갑자기 이런 증상이 찾아오면 남성 갱년기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남성 갱년기증후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서서히 감소하는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에 걸쳐 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년 남성 10명 중 3명이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갱년기증후군의 일반적인 신체적 증상은 신체활동 저하, 체중 증가, 복부비만 등이다. 또 손상과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며 사람에 따라 식욕 저하나 무기력증, 불면 증세가 생기기도 한다.

아울러 심리적으로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며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성적인 문제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데 성적 욕구의 감소와 성행위에 대한 불안감, 성행위 중의 발기 문제와 이로 인한 자신감 결여가 대표적이다.

이런 남성 갱년기증후군은 호르몬 수치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데 하루에도 수시로 호르몬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오전 7시~11시 사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남성 갱년기로 확진받으면 부족한 남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방법으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경구제제를 복용하거나 주사제 등을 이용하면 된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 김재식 비뇨기과 교수는 "우리나라 남성들은 부끄러움으로 치료를 피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자신감 결여 등 갑자기 신체·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면 남성 갱년기 장애를 의심해야 한다. 또 창피하다고 치부하기보다는 비뇨기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건기식 '혈관팔팔' 피부 기능성 획득

혈관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혈관팔팔'이 피부 노화를 막아 피부 건강을 개선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별인정을 추가로 획득했다.

씨스팜은 혈관팔팔이 식약처로부터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 개선으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개별인정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혈관팔팔의 주 원료인 멜론SOD는 산화스트레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효소 성분이다. 산화스트레스를 방지하는 효과가 피부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혈관팔팔은 항산화 효과와 혈관벽 두께 감소 효과 등을 이미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씨스팜은 혈관팔팔의 피부 기능성 획득을 기념해 혈관팔팔 제품 2개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제품 1개를 추가로 증정하는 '혈관팔팔 2+1 이벤트'를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벌인다. 문의 02)850-2525 /황재용기자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차관 대우 송정훈
■ 외교부
▲ 남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유정현
■ 인사혁신처
◇ 부이사관 승진 ▲ 인력개발국 시험출제과장 염순동 ▲ 성과복지국 성과급여과장 이정민
■ 한국투자공사
◇ 승진 ▲ 이지현 관투이사 ◇ 전보 ▲ 이인호 상임감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임감사 이선묵
■ 방송통신위원회
▲ 통신시장조사과장 최성호 ▲ 방송광고정책과장 장미호
■ 서울시
◇ 1급 승진 ▲ 도시재생본부장 이제원 ◇ 2급 승진 ▲ 한강사업본부장 고홍석 ▲ 주택건축국장 진희선 ◇ 4급 승진 ▲ 청년정책담당관 이계열 ▲ 평가담당관 강옥현 ▲ 정보시스템담당관 서병조 ▲ 창업지원과장 홍순서 ▲ 자활지원과장 김종석 ▲ 동물보호과장 백종석 ▲ 주거재생과장 홍천구 ▲ 행정국 지방세기관 은수희 ▲ 38세금징수과장 전기배 ▲ 건설안전과장 이동혁 ▲ 인재개발원 인재역량과장 김종수 ▲ 상봉도로사업소장 이주연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장 김소재
■ 문화체육관광부
◇ 실장급 전보 ▲ 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 경기문화재단
▲ 감사역 전성기 ◇ 경영본부 ▲ 경영전략실장 겸 정책기획팀장 박종갑 ▲ 경영지원팀장 윤성진 ▲ 홍보마케팅팀장 윤권준 ◇ 문화예술본부 ▲ 문예진흥실장 김종길 ▲ 예술교육지원센터장 전지영 ▲ 문화나눔센터장 엄은옥 ▲ 생활문화팀장 윤여빈 ▲ 문화재단팀장 구정화 ▲ 북부사무소장 백기영 ▲ 경기창작센터장 직무대행 황순주 ◇ 문화유산본부 ▲ 유산기획팀장 원준호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장 정다훈 ▲ 경기문화재연구원장 직무대행 김성태 ▲ 경기학연구센터장 직무대행 심영신 ◇ 뮤지엄본부 ▲ 경기도박물관장 직무대행 백소영 ▲ 경기도미술관장 직무대행 안원오 ▲ 백남준아트센터관장 직무대행 안경화
■ 강원대
▲ 교육연구부총장 강들옥 ▲ 삼척캠퍼스 부총장 배재홍 ▲ 교무처장 신범수 ▲ 교육지원처장 이강우

부고

▲ 박동업 씨 별세, 오혈석(S&T중공업 고문, 전 국방과학연구소 근무) 씨 모친상 = 14일 오후 7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7일 (02-2072-2010)
▲ 변인식(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씨 별세, 이혜경씨 남편상, 승연씨 부친상 = 1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층 30호실, 발인 16일 (02-3010-2000)
▲ 변경선(전 동원부 국장) 씨 별세, 혜원·혜정 씨 부친상, 한종호·송경민·김용태·박건수씨 장인상 = 14일 오전 11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031-787-1500
▲ 이민곤씨 별세, 이원(전 에어 대표)·한주옥(크락스코리아 상무)씨 부친상, 유이환(한국직업자격협회 평생교육원 원장)씨 장인상 = 13일 오후 3시 5분 서울성모장례식장(서초구 강남성모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30분 02-2258-5940
▲ 문상곤씨 별세, 임동혁(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씨 조모상 = 14일 오전 5시 부산 보훈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16일 오전 5시 30분, 051-601-6795

존립 흔들리는 총학생회

고학번 아니면 지원자 없고 집행부 인선도 어려워… "힘들고 바쁜 단체 끝판왕"

새학기 대학가에서는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가 아예 없거나 고학번끼리 경쟁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총학생회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제57대 총학생회장 예비후보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명이 등록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후보 2명 모두 2000년대 초반 입학한 30대 학생들이다.

사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전임 회장이 지난해 9월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명돼 조기사퇴한 이후 6개월 정도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작년 11월 선거가 진행됐지만 연장투표까지 실시됐음에도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달 재선거가 치러지는데 동상 11학번 전후가 주를 이루는 타 대학 선거와 달리 고학번들이 후보로 나섰다. 학번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일각에서는 학점과 학생회 업무의 병행이 어려워 판참 활동할 학번들이 출마를 고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서울대는 상황이 좋은 편이다.

지난 총학생회 선거에서 후보자를 한 명도 내지 못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오는 17일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한다. 그렇지만 후보가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외대는 2014년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후보군이 나서지 않아 선거가 무산됐다가 작년 4월 재선거로 겨우 총학생회를 꾸렸다. 외대 관계자는 "2년 연속 총학생회 선거에 아무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걱정"이라며 "취업이 중요해지다보니 학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이화여대도 보궐선거를 치른다. 작년 말 치러진 총학생회장 선거 당선자가 학점 미달로 학교 측과 자격 시비를 벌이다 지난 1월 제적됐기 때문이다. 이대 역시 선거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아울러 총학생회를 함께 이끌어갈 집행부 인선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학생회장은 "학생회 활동을 하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 학생들은 총학생회를 '힘들고 바쁜 단체의 끝판왕'이라고 부른다. 반면 광고동아리 같은 경우는 공모전 출품 등으로 스펙 쌓기에 좋아 1년에 100명이 넘는 신입회원이 지원해 극과 극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h@metroseoul.co.kr

Harvard HUFS

세계 대학생 모의 유엔 대회 세계 대학생 모의 유엔 대회인 '월드뮨 2015' 개막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참가 학생들이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월커트런트 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쓰레기 전지된 부산거리 부산진구가 시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 중인 '서면거리 청소 안하는 날' 이틀째인 15일 서면복개로 한 도로변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봄꽃, 평년보다 1~3일 일찍 핀다

지구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봄꽃이 피는 시기도 빨라졌다.

15일 기상청이 1981년 이후 주요 도시의 봄꽃 개화시기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1980년대 4월 20일에 꽃망울을 터뜨렸던 매화는 1990년대는 3월 28일, 2000년대는 3월 26일에 개화했다. 또 2010년대(2011~2014년)에는 다소 늦어진 4월 5일에 꽃을 피웠지만 1980년대에 비해 개화 시기가 15일 앞당겨졌다.

1980년대 4월 12일이었던 벚꽃 개화 시기는 1990년대 4월 10일, 2000년대 4월 7일, 2010년대 4월 10일로 진계됐다. 개나리는 역시 연대별로 각각 ▲3월 30일 ▲3월 29일 ▲3월 27일 ▲3월 28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추세는 관련도 전역에서 확인됐다. 대전에서 1980년대에 4월 14일에 개화했던 매화는 2010년대에 들어서 4월 4일에 꽃망울을 터뜨렸다. 부산은 198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매화는 5일, 벚꽃은 3일, 개나리는 4일 일찍 꽃을 피웠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겨울과 초봄의 기온이 크게 올라 봄꽃의 개화가 빨라지고 있다. 봄꽃 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2월과 3월 기온인데 국내 10대 도시의 2월 평균기온은 1980년대 1.2도에서 2000년대 3.0도로 1.8도나 높아졌다. 3월 역시 같은 기간 6.2도에서 7.2도로 1.0도 올랐다.

한편 기상청은 올해 봄꽃도 평년보다 1~3일 정도 일찍 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우리나라 노인 빈곤 OECD 중 최고

빈곤율 48.6%… 연금소득도 최하위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는 일본(24.1%)과 독일(20.7%), 이탈리아(20.6%)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11.3%로 멕시코(6.4%)와 터키(7.6%), 칠레(9.5%)와 이스라엘(10.3%) 다음으로 비중이 낮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는 4.1%로 이스라엘, 미국과 함께 가장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가 빠른 가운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1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48.6%로 2위인 스위스(24.0%)의 두 배 수준이었다. 특히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세대의 노인 빈곤율은 74.0%로 노인 빈곤이 1인 가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5.9%에 한참 못 미쳤다. 이는 주요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70~80% 수준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가는 34개국 중 멕시코와 일본, 영국 등 5개국에 불과하다.

/황재용기자

취업 정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잡코리아 공채 달력 서비스

구직자들의 채용 정보 수집을 돕는 서비스가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올해 상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 다양한 기업의 채용 정보를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는 '2015년 잡코리아 빠른 공채달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채 상세 요강부터 합격자 평균 스펙, 입사 지원서 미리보기, 자기소개서 분석, 연봉 정보, 채용 설명회, 면접 후기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취업 준비생이 접근하기 어려운 해당 기업의 최근 이슈와 기업 문화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박강철 잡코리아 사업본부장은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해 각종 취업 커뮤니티를 검색하고 복잡한 가입 절차를 거치는 등 귀중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며 "취업 핵심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잡코리아 공채 달력이 구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윤희기자